

예술과 GGAC

GGAC ARTS CENTER MAGAZINE

2024. 10.11 VOL. 170

ggac.or.kr

SPECIAL

GGAC 대학민국 100대 예술가들

피아노 테크니컬의 이스토리

STAGE

강기갑 마스터즈 시리즈 IV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프리황

강기갑 정재진 오케스트라 창단 발표식

INSIGHT

창기갑 문화예술의 도시, 예든버러

GGAC STORY

강기갑센터의 다양한 모습

피아노의 時間

화려한 무대의 시간은 덧없이 사라지지만

소리가 전한 길고 깊은 울림은 오래도록 가슴에 머문다

무대 위 홀로서도 불안하게 빛나는 피아노는

남편과 음악 사대를 통치했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의 딸처럼 그 자체로 오케스트라다

전율이 느껴지도록 웅장하기도, 섬세하고 감각적이며 친밀하기도 한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발산되는 피아노의 향연

연주 홀 슈백스가 완성되고 피아노의 연주자들이 올라 조명이 켜지면

아름다운 음악의 광채가 영감의 샘물처럼 흘러나온다

그렇게 피아노의 시간은 짧고도 영원하다



2004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이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첫세한 대관원의 악을 올린다. 경기와 트센터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국내 최초의 단일 악기 페스티벌이다. 오로지 피아노에만 집중하는 무대를 만들고, 한국 피아니스트들의 실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눈을 돌리는 국내 클래식 음악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시작한 이 페스티벌이 벌써 7회를 맞이했다. 클래식 음악을 통한 화합의 장, 그 안의 매개체는 피아노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까지 전통 클래식 음악 연주곡부터 대중적인 음악까지 한자리에서 세계 정상급의 피아니스트들과 젊은 아티스트들이 모여 다채로운 음악을 아우르는 공연은 국내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호 특집은 이 특별한 경기도만의 축제가 지난 9월과 하스되고, 2024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의 음악적 프리뷰, 그리고 첫 시작부터 함께한 강태진 예술감독의 인터뷰를 담았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연주자가 세롭고 다양한 시도를 펼치는 축제에서 피아노의 다채로운 매력에 빠져보길.

2023 경기도 피아노 페스티벌 피아노 오케스트라 위해 첫 연주자들



2024

KOREA PIANO

2024 KOREA PIANO

PIANO FESTIVAL. THE GREATEST MOMENTS.

오직 경기아트센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피아노 페스티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본다.

'피아노와, 피아노에 의한, 피아노를 위한' 유일무이한 축제의 현장을.

이름답고도 다채로운 피아노 선율 안에 담긴 지난 10여 년의 장면들, 그 백만 강점을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역사의 시작

10월 첫 주에 펼쳐지는 올해의 피아노 페스티벌은 2011년 'Peace & Piano Festival'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2021년 '경기피아노 페스티벌', 2022년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로 이름이 변경되긴 했지만, 지향하는 방향은 한결같다. '피아노라는 단일 악기로 다양한 시도를 담은 무대를 보여줌으로써 피아노의 다재다능한 변모를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페스티벌'이라는 점이다. 이 유니크한 피아노 축제는 매년 각각의 테마 아래 기획되었다. 첫 해인 2011년에는 '24 Great Hands'를 주제로 한국 피아노 역사와 포문을 연 1세대, 그 명맥을 이어온 2세대,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은 세계 무대를 향해 새로운 피아노 역사를 써가고 있는 3세대까지 피아니스트 한 명 한 명을 조명한 공연을 선보였다. 깊이 남을 만한 강들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노력의 첫 결자물로, 한국 모두

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였다. 첫 페스티벌의 성료는 이 새로운 향상의 공간이 조금씩 이상을 현실에 그대로 옮겨놓은 무대였음을 그리고 국내 피아노 공연의 새로운 고도 의미 있는 장을 열었음을 반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Festival Bridge'를 선보였다. 두 주제를 잇는 간주 악곡, 즉 첫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 잠시 숨 고르기를 한다는 의미와 음악 용어인 '브릿지' 폐시 '가'에서 치환한 것. 그 의미에 맞게 라이징 스타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오디션을 실시 당시 아직 10대였던 유성호, 김강태, 박민혁, 신율, 김재원까지 5명의 청소년 피아니스트를 발굴했다. 한국 피아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들의 인구는 실질적인 2차 무대인 2013년 페스티벌에서 만날 수 있었다. 'Big Bang the Piano'라는 테마 아래 젊은 피아니스트의 향연이 이어진 2차 페스티벌은 세계

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임동혁, 임동민, 조진형 등 젊은 피아노 거장과 2012년 라이징 스타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된 청소년 연주자들로 구성된 다채롭고도 색다른 도전의 무대로 피아노 음악의 미래와 비전을 가능케 할 수 있었다. 페스티벌 총감독인 강대진 예술감독의 지휘로 경기문화교향악단 합선, 젊은 연주자만이 가능한 열정적이고 파워풀한 연주로 전경원을 보아줄 바 있다. 또 피아노계의 진보와 일관성은 서울대학교 정진우명예교수에게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마련한 '오미주 콘서트', 피아니스트 박종훈이 직접 프로듀싱을 맡아 국악과 타악, 현대무용 등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선보인 현대무용이신 무대 '파스 콘서트'도 큰 감명을 받았다. 레슨으로 이어진 제3차 페스티벌의 테마는 'Piano, The New Frontier'로, 세계적 동향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들을 초청해 큰 주목을 받았다. 세계 최고 권위를 지닌 2014년 프렌치 라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미리암 비차슈빌러를 비롯해 2014년 아르투로 슈만스타인 피아노 콩쿠르 수상자 안토니 바리세르스키가 '피아노 리사이틀'을 이끌었다. 더불어 지난 대콩쿠르의 주인공 공 이진성, 반 베토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단소이지 한국인 최초로 2위와 특별상을 수상한 한지호의 무대도 만날 수 있었다. 피아니스트 한지호는 자·바카우이 국제 피아노 콩쿠르, 뮌헨 SACD 국제 음악콩쿠르, 퀴엘라자 국제 음악콩쿠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수의 콩쿠르에서 연속 상위에 영크되며 당시 치세대 주지로 재임했던 연주자, 그뿐 아니라 임춘현의 스승이자 누리온 기교의 명보한 하문 허셔로 호평받고 있는 손민수, 안태내셔널

재민 피아노 아티스트에서 우승한 선우예린 등 치세대 피아니스트의 현상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알고 보면'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한 무대가 아닐 수 없었다. 제4회가 열린 2017년 페스티벌의 주제는 'Asian Harmony',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시아 피아니스트를 집중 조망했다.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을 지닌 피아니스트 감정의 연주로 시작해 해외 특집한 무대를 선보인 후 피아니스트 박종훈이 첼리스트 이은수와 프 중음, 피아니스트 임주인 부비에 그리고 아내 치후우 이이자와 외 함께 유니크한 현대무용이신 무대를 펼쳤다. 또 한 음 실 피아니스트, 즉 한국의 한지호, 중국의 레이보 쟁, 일본의 가나 오키다 가루정의 무대를 선보였다.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

2021년, 4년 만에 새로운 시작을 알린 경기피아노페스티벌. 타 이름 변경으로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임을 전파하는 의미를 담았다. 'Touching Piano'라는 테마 아래 피아노계를 이끌고 있는 중견 피아니스트 강우성, 김준, 박진우, 한상일이 한 무대에서 네 대의 피아노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을 연주했다.



- 일시 2022년 10월 19일 - 20일
-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소극장
- 공연 시작 20월 19일 20일
- 만원공연 12월 19일
- 문의 031-230-3204
- 홈페이지 1544-2344

도 2004년 포르투갈 코루루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의 최호로 1위를 수상한 김태환의 리사이틀, 부산시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거머쥔 박재홍이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2023년에는 '모두의 피아노'를 주제로 남나노스, 진문기와 비전문가 모두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피아나스트들의 피아나스트로 불리는 안드라스 시프의 리사이틀이 단연 하이라이트였지만, 무엇보다 축제에 사색을 얹는 무대였던 '오프닝 콘서트: 피아노 오케스트라'가 장에 없던 융합형으로 관객을 끌었다. 대극장 무대에서 15대의 그랜드피아노에 30명의 피아나스트가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완성했다. 김태환 예술감독을 비롯해 이진성, 아예 그레, 박성성 등 국내 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피아나스트들의 연주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잔류한 무대로 관객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 외에도 장해진 단원으로 구성된 '모두의 콘서트'를 김태환 예술감독과의 협연으로 선보여 융합형

선시했고, 파날레 콘서트에서는 피아나스트 산나 듀오와 일동민, 성기진 지휘자와 정기유희오보의 하모니가 펼쳐졌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피아노 페스티벌
그리고 2024년,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제24회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경기아트센터가 지향하는 외연을 넓혀 1회부터 빈방석이 전체 무대를 총괄한 이는 한국에 융합형과 융합자 피아나스트인 김태환 예술감독이다. 이번 축제는 정통 피아노 프로그램은 물론 평소 피아노 공연을 많이 보지 못한 관객도 쉽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과 야외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첫 무대로 공연은 2023년 처음 선보인 호응을 얻은 '피아노 오케스트라'다. 그랜드 피아노 15대와 피아나스트 30명이 모차르트 교향곡 40번과 베토벤 교향곡 7번을 웅장한 하모니로 선보인다. 또 2012년 페스티벌에서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피아나스트 선율이 리사이틀 무대를 준비했다. 10여

년이나 지나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른 그가 올해 자나 바카우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성장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특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0월 5일 주일에는 피아노 협연 무대가 열린다. 2015년과 2017년 무대에 섰던 정지호와 2023년 부산시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아르부르 베히슈테 미켈란젤리 상 수상 등으로 유명한 아르세니 문이 함께 펼치는 협주곡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하는 하이라이트는 페스티벌 마지막 날인 10월 6일 일요일 무대에 오르는 알렉산드르 린도프의 리사이틀. 2019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의 주인공이자 '빈스타의 황성'이라 불리는 그의 특별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대극장에서 교향곡 연주와 관객을 사로잡을 동안 소극장에서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매일 저녁 피아노의 다채로운 매력을 폭 넓게 선보이는 공연이 이어진다. 피아나스트 송영민의 협연이 곁들여지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피아나스트 김경민과 아나주아 듀오로 선보이는 '영화화된 피아노 콘서트', 피아나스트 조은경과 베이시스

트 황호규, 드림 연주자 신동진, 소프라노 이혜림이 함께하는 제2조 공연 'The Masterpieces: Jazz Variation', 아미주이 피아나스트에게 디지업을 기회의 무대 'Stage for You', 그리고 야외극장에서 이어지는 공연까지 풍성하다. 2011년부터 이어진 피아노 페스티벌은 국내 클래식 음악의 높은 수준을 널리 알리고 한국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전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계 요이강이 활동 전 세계 각국의 피아나스트를 한 자리에서 만나고, 색다른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 그리고 클래식 음악의 애호가뿐 아니라 성숙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무대. 매해 신선했던 기획과 순수한 열정, 피아노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조화를 이룬 감동의 열창체 그 자체다. 이 특별한 피아노 축제가 지난 다채롭고 무한한 매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13년 전 첫 페스티벌이 꿈과 이상을 현실로 실현시킨 무대였듯이, 어쩌면 세계 무대에서 만나는 꿈같은 장면도 아니지 않겠나. 글 김민호

2011

24 Great Hands
14대 피아나스트 협연 무대
말리 그로히(소프라노) 호성민(바
사현을 두루 아우르는 리사이틀 200
피아나스트 12명의 하이라이트
24개의 잔류한 하모니
아름다운 하모니를 찾아냈다.

2012

Festival Bridge
하이라이트: 김태환 피아노 협연 무대
10대 피아나스트 4명 협연 무대
2013년 2월 14일 피아노 페스티벌에서 이들을
무대를 선보임으로써 2011년과 2013년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한 것이다.

2013

Big Bang the Piano
젊은 피아노 거장들의 폭발적인 무대.
각 분야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협연 무대.
오미주 콘서트, 박지영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젊은 아티스트의 무대들이 펼쳐졌다.

2015

Piano, The New Frontiers
세계적 콩쿠르에서 우승한
유망한 피아나스트 4명을 초청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인생의 다양한 스텝, 한지호, 송은주,
전우현 등 차세대 피아나스트들이
활성 무대다.

2017

Asian Harmony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시아 피아나스트를 집중 조명해
다채로운 무대를 연출했다.

2021

You're Rising Piano
경기아트센터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의 계화한 2021년
피아노 축제를 이끌고 있는
송진 피아나스트의 감동적 무대
아름답다.

2023

모두의 피아노, 모두의 피아노
안드라스 시프의 리사이틀부터
피아노를 사랑하는 아미주이 무대까지
남나노스, 진문기와 비전문가
모두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2021 경기아트센터 페스티벌 공연 모습

APPRECIATE, ENJOY AND FEEL IT!

'세 That Piano'를 주제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을
오랫동안 감상하며 흠뻑 빠져볼 수 있는 다섯 가지 키워드



피아노 협연자 알렉시 레온하르트와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는 레온하르트.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결코 진부하게 다가오지 않는 표현이 있다. 바로 '악기의 왕, 피아노'. 홀로 설 때 가장 당당할 뿐 아니라 함께할 때 다른 악기를 든든히 받쳐주는 기동 역할도 훌륭히 해내는 멋진 악기의 피아노다. 그래서 피아노가 있는 음악회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여겨 날에 걸쳐 펼쳐지는 시리즈나 축제 무대에 올랐을 때 더욱 특별하다. 아름다운 계절 10월에 6일간 열리는 2024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악기의 왕이 자신 전열과 고유의 아름다움에 치중한 것으로, 축제의 부제 그대로 '피아노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될 예정이다. 피아노라는 악기의 특성이거나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 등이 워낙 광범위해 한정된 표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페스티벌의 다채로운 구성을 돌아다보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음악회를 찾을 수 있는 키워드가 속속 눈에 띈다.

한희

피아노의 힘이 일방적으로 강력하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어쨌든 모이면 그 에너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해진다. 축제 첫날을 장식하는 '멀티 피아노' 음악회는 무대 위를 혼자 서 있던 피아노의 이미지를 거대한 앙상블의 울림으로 변신시키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거대한 악기의 모음이지만 섬세함과 민감한 반응을 연출해내는 것도 가능한 것이 '피아노 오케스트라'의 장점이다. 역대 피아노 연주회는 오차르드 교향곡 40번은 특유의 예수와 정제된 아름다움으로 일러진 걸작으로, 피아니스트의 손끝으로 그려내는 관현악의 음색과 특유의 프레이즈는 오차르



1. 오차르드 협주곡 '세 That Piano' 공연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인 레온하르트. 그 외에도 올여름에는 오차르드 협주곡을 연주할 피아니스트를 소개한다. 2. '세 That Piano' 무대 위에 펼쳐지는 피아니스트 레온하르트. 3. '세 That Piano' 공연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인 레온하르트. 4. '세 That Piano' 공연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인 레온하르트. 5. '세 That Piano' 공연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인 레온하르트.

피아노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수많은 피아니스트를 통해 창의적 도전과 창조 역사가 또다시 펼쳐질 것이다.



트 음악 세계에서 색다른곡과 독창성을 동시에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후반부에 연주되는 베토벤 교향곡 7번은 스케치본의 정점을 선사할 예정이다. 30대의 피아노, 그 앞을 앞은 30명의 피아니스트가 절대 함으로 빛날 베토벤의 음악 세계는 극적 힘의 악상과 강한 전진으로 인기가 많은 이 교향곡의 외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것이라 생각된다. 네 악장 중 느린 악장이 하나도 없는 특이한 구성의 교향곡 7번은 창작 중기 베토벤의 예저기 융성기 작품으로, 건반악기인 동시에 타악기의 특성을 가진 피아노를 통해 변신시킬 수 있는 희곡의 곡이라 더욱 기대가 된다. 이와 함께 중흥은 기쁨에 찬 피아니스트들의 표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홀로 고군분투하여 외로움을 느끼거나 다른 연주자를 여러 방법으로 '책임 지는' 일에 충실했던 피아니스트는 그조도 이만큼 해고되고 즐거우며 서로 나눌 것이 많다. 연주할 때의 흥분은 고스란히 현악로 변할 것이란 혁신한다.

망신, 그리고 어엿
피아니스트 산울의 공연에서는 피아노를 통해 송미로써 어엿이 펼쳐진다. 트라키의 연주곡들은 그의 인생적 기법이 그의 세련미로 나타낸 시기의 작품으로, 직접적 묘사 없이 몇 개의 음만으로 듣는 이의 상상력을 바래주는 마법을 부린다. 마니프라타의 연극에서는 이렇듯이 해방의 안락에서 한가롭게 풀리는 양 평온 만날 수 있고, 비노와 들에서는 지중해에 닿았을 노색연의 이국적 풍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또 '여종이 본 것'에서는 모든 것을 쏟아버릴 듯 강한 비망의 모습을 그려내는 사운드들 통해 심정을 투근거리게 하는 작품을 느낄 수 있다. 아서시 연주는 스토리텔링이 꽤 트루슈의 3개의 연주를 후미로 러시아의 미를위한 시향과 흥미진진한 인형극의 세계로 이끈다. 스토리텔링과 감각 '발레'는 인형들의 출아기에 더욱 특이하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기는 여자가 비틀어진 동시에 후스 경스된다. 인형의 사랑과 아픔, 고통에 대한 공감과 심정을 만들어내는 역할 역시 피아노의 몫이다. 오케스트라와 작품을 비로부우소적 매력이 넘치는 피아노곡으로 할바공자님 작곡가의 능력도 뛰어난 데다 연주자가 무대에 서 선보일 화려한 연주 효과와 멋진 특감도 함께 만날 수 있다.

혁신, 운영
경기발해역과 합연하는 한자로, 아르세니 쿨의 연주회에서 들리는 두 합주곡은 음악사 속 제미있는 가정을 해를 기회를 제공한다. 베토벤 피아노합주곡 4번은 남성적이고 두 정적인, 불굴의 의지로 인생의 난관을 뛰어넘는 초현의 이화자를 담은 작곡가의 작품이다. 세세적으로 부드러운 서정성과 감성이 찬란한 에드라는 작품이다. 무엇보다 이 곡은 작곡가가 당시의 새로운 기술이 결집한 '에르' 피아노를 위한 후처음 만든 합주곡이라는 사실에 중요한다. 악기의 음악에서 새, 액션의 노고 등을 고려해 솔로 피르를 세심하게 만들었다. 오케스트라와 솔로 악기 간 원전한 독립, 감각적합자면 신선한 화성 변화 등 혁신 그 자체였던 베토벤의 세계를 통틀어서 놀라운 곡이 아닐 수 없다. 세 악장 중 현악기와 피아노와만 연주되는 2악장은 짧은 긴주곡을 작곡가의 운영을 간결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산울은 연신(左)을 공연으로 드러내며 스토리텔링과 작품을 뛰어넘는 데다 연주자가 무대에 서 선보일 화려한 연주 효과와 멋진 특감도 함께 만날 수 있다.

피아노와 피아니스트
여럿이 모이면 그 힘과 에너지는 상상 이상으로 강렬해진다.

이르다. 이 악장을 실행할 때 자주 등장하는 오르페오 신화를 절박해 감상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하데스에게 아내 유디티를 빼앗겼다고 부딪히는 오르페오(피아노 독주), 천둥 소리를 폭풍의 답변을 내리는 비수의 여신(관악기)의 대회는 처음 듣는 이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날 함께 연주되는 에드바르 그리그의 피아노합주곡 a 단조는 19세기 피아노합주곡 중 최고 인기율을 누리고 있는 걸작 중 하나로, 작곡가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24세의 에드바르 그리그를 일약 노르웨이 최고 작곡가로 만든 이 합주곡은 작곡가의 운영을 간결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음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날 연주할 '노브라'는 시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으로, 기술적으로는 트레몰로를 위한 곡이지만 작곡가가 설정한 메일릭과 연주자의 카리스마가 합쳐지는 순간 그 입체적 사운드를 통해 노브라와 폭풍우가 내리던 순간으로 나타난다. 슈베르트의 상상적 역시 라스트에 못지않았다. 섣달 피르로는 열감과 함께 한없는 자유를 누렸으며, 멀포디와 그것을 구성하는 형식에 대한 생각도 시대를 훌쩍 앞서 있었다. 이러한 슈베르트보다 황금과 어울리는 작곡가는 없을 것이다. 무한대의 호호음으로 흐르는 선율과 신선한 놀라움을 선사하는 그의 조옮김은 성악곡뿐 아니라 피아노 작품에서도 자주 드러나는데, '발랑티'라는 곡의 선율을 변주곡 악장과 주제로 차용한 이 황금곡은 그 이유이다. 더치하고 연속한 '발랑티'의 모티브는 간섭에 날개를 단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하며, 자신도 연주자 불가능할 정도의 기교적인 나해함은 피아니스트는 물론이고 감상자들에게도 다른 의식을 불어넣었다.

런티지, 황금

알렉산더 칸토로프 독주회에서 주목할 작품은 칸토르의 '초절기교 연주곡 중 노브라', 그리고 슈베르트 황금곡 '발랑티'다. 가히 피아노 테크닉의 '발랑티'라고 할 만한 라스트의 '초절기교 연주곡' 열두 곡은 단순히 기교적 어려움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닌, 치밀한 묘사 음악으로서 특출도 다지고 있다. 8개 간섭. 간섭에 날개를 단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하며, 자신도 연주자 불가능할 정도의 기교적인 나해함은 피아니스트는 물론이고 감상자들에게도 다른 의식을 불어넣었다.



작주 무대를 활약하는 피아니스트와 오르페오의 목소리로 그려진 연주를 들려주는 피아니스트 산울로

있던 독특한 음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날 연주할 '노브라'는 시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으로, 기술적으로는 트레몰로를 위한 곡이지만 작곡가가 설정한 메일릭과 연주자의 카리스마가 합쳐지는 순간 그 입체적 사운드를 통해 노브라와 폭풍우가 내리던 순간으로 나타난다. 슈베르트의 상상적 역시 라스트에 못지않았다. 섣달 피르로는 열감과 함께 한없는 자유를 누렸으며, 멀포디와 그것을 구성하는 형식에 대한 생각도 시대를 훌쩍 앞서 있었다. 이러한 슈베르트보다 황금과 어울리는 작곡가는 없을 것이다. 무한대의 호호음으로 흐르는 선율과 신선한 놀라움을 선사하는 그의 조옮김은 성악곡뿐 아니라 피아노 작품에서도 자주 드러나는데, '발랑티'라는 곡의 선율을 변주곡 악장과 주제로 차용한 이 황금곡은 그 이유이다. 더치하고 연속한 '발랑티'의 모티브는 간섭에 날개를 단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하며, 자신도 연주자 불가능할 정도의 기교적인 나해함은 피아니스트는 물론이고 감상자들에게도 다른 의식을 불어넣었다.

실험

일시 피아노를 무척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주립상 한자기 피아노만큼 분명한 악기도 없다. 피아노는 간섭을 누르는 순간 소리가 시되며, 그 순간부터 빠르게 사라지는 소리를 차용한 방법이 없다. 바르 말레, 사지지는 순간부터 작아지는 특성을 가진 피아노의 소리는 활이나 호호음이 하려하는 한 크고 작게 연주할 수 있는 한악기나 관악기와는 차원이 다른 한계를 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가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피아노와 그 작품의 의식은 이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인 동시에 그 특성을 역이용해 새로운 경지를 창조하는 실험의 시간이라고 하겠다. 청의역연 도전과 기가에서 창조되는 의식은 어떤 비타협에 참여하는 수많은 피아니스트를 통해 또다시 나타날 것이다. 아무쪼록 그 매력적인 실험의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

를 줄여준, 피아니스트, 대현악기단 연주회, 서울대 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도스카리 작곡음악회를 줄이고 인 1988 음악과 강연이다. (재)소리 재발견을 통해 음악 탐구소스르도 '돌이켜' 활동하고 있다.

피아노 인생, 그 다채로운 축제 한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경솔한 피아니스트
인재를 길러낸 교육자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대진 총장 이름 앞에 붙는 타이틀도, 수식어도
여럿이지만 그 모든 것은 "피아노", 그 하나로 귀결된다.
그의 피아노 인생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피아노 페스티벌, 그 안에 달은 외피
이진상 선율, 한지호, 아베세나 문, 알렉산드로 캄
보르프...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
고, 세계 무대에서 수준 높은 연주로 관객의 찬사를
받는 이 연주자들이 모이는 무대는 다름 아닌 경기
아트센터에서 펼쳐지는 '2024 대한민국 피아노 페
스티벌'이다. 이번 유년과 30명의 피아니스트가 한
무대에 서고,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들이 다채로운
피아노 공연 프로그램으로 6일간 축제를 펼 채운다.
나이라도, 겸허도, 개성도 전부 다른 삶에 있는 이 피
아니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건 페스티
벌 예술감독인 김대진 총장의 힘이다.
2011년 시작된 18부터 지금까지 피아노라는 단일
악기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의 큰
틀을 그려며 이끌어온 김대진 총장은 시작부터 모
든 게 자연스러웠다고 말했다. "페스티벌의 시작은
2011년 당시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과 관악계 대
회를 나누던 중 나온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였을 거
예요.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실현하게 되어 기뻐지
면 사실 매우 진행하면서 풀어가 미지미이 아닐까
생각하곤 했어요. 국위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오겠
동안 지속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의 말대로 이 쉽지 않은 프로젝트는 경기아트센터
와 김대진 총장의 기하학과 추진력, 무지개 색의
같이 더해져 회를 거듭할수록 더 큰 4편 두루마리
이 되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많은 관객이 페스티벌
무대를 기다리고, 새로운 관객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 인기를 방증한다.

“피아노는 연주자마다 들려주는
자기 소리는 있지만 자기 악기라는 게 없어요.
같은 피아노여도 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날 수 있죠.”



“한 국민의 DNA에는 예술적·음악적 소질이
다분한 것 같아요. 그중 피아노에 관한 자는
유전자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적
으로도 인정받은 훌륭한 피아노 연주자가 많
이 배출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연주자를 국내 관객에게 소개하
면서 피아노 음악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
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예선진 역할을 하는
생각이요.” 문은 현상적으로 티켓 파워로 인한
충돌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는 적절히 신랄하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대진
출생지 이태리어를 통해 새로운 스타가 탄생
할까를 비웃었다. 이미 국내에서 이태리가 알
려진 화려한 이력의 연주자 심와에도 오랜 시
간 동안 공을 들이던, 베스타비에 최를 거듭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는 새로운
연주자를 함께 선보이려고 노력해 왔다. 주로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메인 공
연 외에 관객이 좀 더 듣기 쉽
고 친숙한 대중적 곡들로 구
성된 ‘프린지~’ 베스타비
개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기
획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예술한다고 말했다. 김선옥 경기관호나 예
술감독부터 손영철, 문지영, 박재욱 등 뛰어난
피아니스트를 길러낸 건 이따기 너무나 유명하
다. ‘피아니스트의 피아니스트’ 불리는 그
의 교육 철학은 무엇일까. 김 선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스승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대학 다닌 1980년대 초반엔
헤드 스승의 스터디였어. 그는 게 있었어요. 누
군지 어떤 곡을 연주하면 누구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예
요. 해설책이 없지 않을 뿐 아니라 연주자의 성
격과 개성, 참여력 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확대되면서 신
생들을 통해서만 배우고 완성하던 예전과 달
라서 주입식으로 곡을 가르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의 말대로 유튜브 채널에서
곡뿐만 감상해도 이스트비날로 다양한 연주
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선택 가능하고, 혼자서도 스스로 완
하는 곡 연주를 완성할 수 있는 시대라 한 것

향을 주는 것 같아요. 독주할 때와는 또 다르
게. 여러 대의 피아노가 밟아내는 오케스트라
의 소리에 흠뻑 빠져볼 수 있기를 바란다면.”

무대 위에서, 그리고 무대 밖에서
김대진 출생은 총정, 교수 이전에 피아니스트
와 지휘자로 이미 명성이 대단했다. 10대부터
국내뿐 아니라 세계 주요 콩쿠르를 휩쓸어 천
재라고 불릴 만큼 두각을 나타내다 1만 번 일
의 진화론자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휘자로서
도 능력을 각인시킬 정도로 활발히 활동해 왔
다. 그러나 점차 그는 스스로 무대 위에 서는
연주자보다는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자되길

“피아노는 독주 악기라는 본질을 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꼭 예술적 가치를
논하지 않더라도 심할 정성이 필요하니까.”

이런다고 말했다. 김선옥 경기관호나 예
술감독부터 손영철, 문지영, 박재욱 등 뛰어난
피아니스트를 길러낸 건 이따기 너무나 유명하
다. ‘피아니스트의 피아니스트’ 불리는 그
의 교육 철학은 무엇일까. 김 선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스승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대학 다닌 1980년대 초반엔
헤드 스승의 스터디였어. 그는 게 있었어요. 누
군지 어떤 곡을 연주하면 누구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예
요. 해설책이 없지 않을 뿐 아니라 연주자의 성
격과 개성, 참여력 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확대되면서 신
생들을 통해서만 배우고 완성하던 예전과 달
라서 주입식으로 곡을 가르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의 말대로 유튜브 채널에서
곡뿐만 감상해도 이스트비날로 다양한 연주
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선택 가능하고, 혼자서도 스스로 완
하는 곡 연주를 완성할 수 있는 시대라 한 것

이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입생간 학부”이다.
물론 참여적 예술의 시작은 기술에서 비롯된
다. 직접한 시기에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기
술은 습득하기 어렵고, 이스트가 있고 있는
느낌이나 이미지, 핵심이 기술적 한계로 부딪
혀 발전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학생 본인에게 기본적인 기술 습득 과정을 혼인
하거든 후에 충분히 이론과 이론, 철학 등 다
른 분야를 다양하게 결합하고, 현대인의 소양
을 갖춰야 하고, 스승은 앞에서 제우고 보충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
예술계의 최두는 참여적이지 않아요. 참여적
하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태도는 없어요. 참여
적 교육 교육을 위해 학회에서
다양한 것을 결합해 불기회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융합을 통
해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학생 스스로 해야 한
다고 생각해요. 선생이엔 학생

이 지난 본성과 본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
다. 평소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무대
에서 연주할 때 보이는 정언문을 파악해 수정하
고 보완해 주는 것이 선생의 해야 할 중요한
일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요즘
세대에게는 맞을 교육이 아닐까요.”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9대 총장 임기가 끝
나는 1년 후 다시 교수로서 강의실로 돌아
날을 기대하고 있다. “헤드폰의 알람” 교향곡
을 좋아하지만 문장이라는 것은 싫어해요. 문
장을 그한테 이렇게 학교 행정 업무를 맡게 한
것도 문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온 한니다. 총
장으로 취임하기 전 교내 교수 학생에게 참
의력을 기르실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에 때문

“요즘 예술계의 화두는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해답은 없어요.
학생 스스로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학생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완해 주는 것이 스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되어 있던 패턴거든요. 강단에 선 지 25년이 넘었음에도 어떻게 기교짜리 활자 혼란을 겪던 시기였어요. 강단을 걸면 떠나 있는 지금 선생의 역할에 대해, 또 자신을 돌아보면 숨을 고르고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김충정은 콩쿠르의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개성치고 배울 수 있는, 대회 실적과 관계없이 진배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발견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갖추어진 좋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 국내 현실에서 가능 여부를 떠나 무대 위에서 또 무대 밖에서 수많은 열광의 순간을 경험하고 또 제자들을 지켜본 온 그에게 충분히 품을 수 있는 바람일 것이다.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젊은 연주들이 만들어가야 할 미래는 이런 그의 바람이 실현된 장면으로 채워질지도 모른다.

국내 피아노계의 산동원

오랜 시간 연주자의 지휘자로, 또 교수로서 음악과 호흡해 온 그에게 한국 클래식 음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 K-클래식은 어느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현재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콩쿠르에 입상은 일제가 많이 나오고, 임원진 길은 스타 연주자의 공연 티켓이 단시간에 매진되는 현상을 두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국내 클래식 음악계는 온전히 조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연주만 하면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연주자가 몇이나 될까요? 이미 없을 겁니다. 보통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 해외 외에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빨리 개선되어야 하고, 그 후

에 비로소 K-클래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느 한 부분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에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기교도 이미 성공한 개인을 추월하기보다는 일본처럼 기교시를 지원해 줌으로써 신인 음악가들 더 많이 발굴해 연주회를 열어들 수도 있겠지요. 또 관객들도 초대권보다 직접 예매한 티켓으로 자주 공연장을 찾아야 하겠지요. 그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마다 막혔듯이 이어지는, 진심을 담은 그의 답변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연주자이면서 지휘자이기도, 교수이기도, 예술 행정가이기도 한 그의 표정과 말에서는 오랜 인생에서 비뚤린 통찰과 여유가 묻어났다. 말끝만 감춰 숨은 자질으로 카바라 앞에 선 그의 인상은 정중하고 친절한 애나리스트를 자신 총장이었지만,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건반 위 손끝에서 끝내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피아노 입문자에게도 익숙한 ‘열라케를 위하여’ [일부 분은 잘 알지만 전곡을 끝까지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은 가세요.] 김대진 총장이 연주하다, 낯익은 음악이 사뭇 다른 소리로 다가왔다. 그렇게 잠시 잠깐, 연주에 몰입 듯 행복해 기쁨이 울금만큼 피어올랐다. 그 순간 느낌 ‘소리’는 그가 예기한 피아노가 자신 본질의 힘이자 매력일지도 모르겠다. 확고한 음악관과 교육관으로 여전히 고민과 노력을 늦추지 않고, 실험적 시도와 혁신을 마다하지 않으며, 예술의 종신과 향미적 융합의 길을 걸어가 있는 김대진 총장은 이 시대 한국 음악계의 진정한 마에스트로가 분명했다. **글 이종우 사립 박우민**



경기필마스터즈시리즈Ⅳ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 협주의 향연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Ⅳ’ 네 번째 공연이

10월 중순 관객을 찾을 제비를 마쳤다.

김선욱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라이너 호네의

한상적인 호흡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김선욱 예술감독의 지휘로 연주되는 이번 공연은 ‘베르베르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61’,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작품 40’의 선율로 콘서트홀을 가득 채운다. 이번 연주를 위해 빈 필하모닉 재(악장 라이너 호네와 바이올리니스트 라이너 호네)와 슈트라우스 교향시의 악장 역할을 맡는다. 라이너 호네는 30여 년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1981년 빈 국립 오케스트라 재(바이올린 주자로 복원 이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합류했으며, 1984년에는 빈 국립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1992년부터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승격해 두 오케스트라의 수장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일본의 주요 무대에서 솔리스트로서 화려한 경력을 차지하고 있다. 빈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치바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 극장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말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이번 공연은 협연과 솔로 연주, 지휘까지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갖춘 라이너 호네가 경기필하모닉과 함께 하는 무대이자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갖게 될 수 있다.

라이너 호네와 함께하는 협연으로 더욱 특별한 이번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는 상암자회자인 김선욱 예술감독의 지휘로 또 한 번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는 김선욱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올해 앞서 세 번의 세피베르 시즌을 가차 없이 끝내



지난 가을에 열린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Ⅲ에서 김선욱 예술감독이 지휘로 세 번의 교향제 3번 '영웅'을 연주하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1. 안무자들과 함께한 리cardo 호세
(왼쪽 단거리)와 안무자,
교향악단원 연주하는 리cardo 호세,
조경기(왼쪽)와 안무자(가운데),
교향악단원(가운데)
4. 베르디 교향곡 7번 '영웅'을
연주하는 경기도교향악단원



를 받은 '밀고보'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김
산옥 예술감독은 "무에 연주하는 베르디의 바
이올린 협주곡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협주곡
중 하나로, 나에게도 바이올린 같은 곡이다"라
고 말하며 바이올라-나스트기 연주하기 어려
운 곡인 만큼 리cardo 호세의 연주에 기대감
을 드러냈다. 그는 또 "슈트라우스의 작품은
기발하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가득하지만 어
느름 하나 더하거나 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
다. 정말 천재적이라고 생각하고, 연주하면서
최면을 느끼는 부분도 많다"라며 공연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김산옥 예술감독이 천마 마지막에 베르디
바이올린 협주곡은 베르디의 유일한 협주곡
독주 협주곡이다. 베르디가 1806년 완성한
곡으로 멘델스존과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시벨
리우스로 이어지는 19세기 바이올린 협주곡
병크 계보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걸작
이다. 빈틈없는 구성에 교향악적인 웅장함과
조화미를 갖춘 바이올라-나스트기(가장)
이 무대에 연주하는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손
꼽힌다. 베르디의 1악장 카덴자를 채워넣지 않
아 오히려 연주자의 음악성과 재능을 보여주
기 좋은 곡이다. 또 비그너 이후 독일의 가장
뛰어난 작곡가 중 한 명으로 독일 후기 낭만
파의 마지막을 대표하는 음악가 리하르트 슈

트라우스의 교향시 '영웅의 생애'는 전성기
를 누리던 슈트라우스가 자신의 아이들을 담
은 작품으로 협주곡만큼이나 악장의 독주가
중요한 곡이다. 1부 '영웅, 2부 '영웅의 죽음',
3부 '영웅의 반역자, 4부 '전쟁터의 일화, 5부
'영웅의 입력, 6부 '영웅의 고독과 성취'까지
총 여섯 장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4관 현성,
8대의 호른, 2대의 하프, 여러 타악기 등이
나오는 대관성 곡이다. 독일 작곡가들이 영
웅을 주제로 각자 나뉘는 방식으로 만든 작
품 가운데 지난 3월 경기필하모닉에 연주한
베르디 교향곡 9번이 '영웅의 생애'를 시작한
곡이었던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는 영
웅의 생애에 미치 못할 만큼 격조가 높았다.

글 전담



• 일시: 11월 20일 20:00 / 11월 17일 19:00
• 오후 7시 30분: 경기교향악단 대관장 /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발매: 2021년 11월
• 발매: 021-230-3324
• 발매: 1544-2344



1. Riccardo Hosé



〈THE CLIBURN〉: 반 클라이번 위너스 콘서트 STAGE FOR WINNERS

미국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을 기념하는
책이 최고 권위의 피아노 콩쿠르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2023년 6월에 열린 제16회 콩쿠르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2명의 피아니스트가 결기이벤트를 찾는다.



2023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동메달 수상자 안나 게뉴사키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국내 클래식 음악 관객에게도 낯설지 않다. 2009년 손열을 피아니스트가 2위, 2017년에는 선우 예진 피아니스트가 1위를 차지했고, 2022년에는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압도적 영연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워 화제가 된 바로 그 콩쿠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권위 있는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022년 입상한 예 이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한 두 연주자가 10월 31일 저녁 반 클라이번 위너스 콘서트도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두 연주자는 바로 신산하면서 피력했던 시온드와 감행한 음악적 개성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은메달을 수상한 안나 게뉴사키(Anna Genusaki)와 독특하고 다재로운 음악성과 독창적 인주를 펼쳐 동메달을 수상한 드미트리 초나(Dmitri Chona)다.

1부에서는 드미트리 초나(드미트리)의 전주곡집 제1권 6번 '눈 위의 발자국', 브람스의 4개의 피아노 소품곡 Op. 119, 샹베스트르프의 4개의 피아노 소품곡 Op. 2,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 2번 G단조 Op. 22를 연주하고, 이어서 2부 무대에서는 안나 게뉴사키가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9번 G단조 D.958과 소정의 3장의 왈츠 Op. 34 등 주옥같은 명곡을 피아노 연주로 들려준다. 안나 게뉴사키는 얼굴 실 때 베틀린 필하모닉 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 데뷔 무대를 가진 이후 리즈 티운홀, 모스크바 음악원 그레이브홀, 빌바오 실라그레파 등 세계 주요



2023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드미트리 초나(드미트리)의 연주 모습

연장에서 연주했으며, 이 외에도 실내악 및 음악 축제 개최 등 예술가로서 다재능과 폭넓은 경력을 쌓아오고 있다. 현재까지 거둔 안 '벤쿠버 소정 소시아티'에서 온라인 리사이틀, 모스크바 '블라모나'의 '알레어 시온'에 참여하고 'ConSpirita'라는 유튜브 음악 채널 녹음 세션 등을 선보이며 온라인 프로젝트에서도 활약하고 열악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시즌에는 그랜드 티너비 뮤직 페스티벌, 라 로크 데통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등 국제 페스티벌 참여와 미국 전역 리사이틀, 피아니스트 안드레이 구그닌과 함께 일본 주어, 리투아니아 국립 교향악단 및 리투아니아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선보였다.

드미트리 초나는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메달을 획득한 두 번째 우크라이나 피아니스트로 주목을 받은 연주자. 독

특하고 다재로운 음악성으로 많은 이의 찬사를 받으며 관객을 사로잡는 존재감을 보여줬



다 한 평론가는 "그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승리의 자신감으로 가득 찬 환한 미소를 지었다. 숙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소용돌이는 전문 예술가만이 분당 다라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열정과 실력을 갖춘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두 연주자의 멋진 무대를 감상하며 10월 마지막 날을 오래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보길 바란다. 글렌다



- 일시: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7시 30분
-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금액: 5만 원, 7만 원, 9만 원, 14만 원, 19만 원
- 티켓팅: 10월 24일
- 문의: 031-230-3262
- 해: 1544-2344

〈서양미술 500년〉의 여정: 가을명화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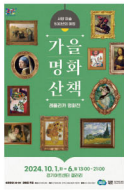
미술의 전통과 혁신을 만나다

다양한 미술 시조를 아우르는
명화를 한자리에서 만난다.
세계적 명화를 고해상도로 복원한
레플리카 작품을 통해
풍부한 미술 역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클로드 모네와 '엘트 강변의 포플러',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앙리 마티스의 '여인' 소개가 있는 살레, 구스타프 클림트의 '양귀비 언덕'... 전시장에는 세계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너무나 유명한 거장들의 작품이 즐비하다. 르네상스부터 상징주의, 인상파, 야수파까지 서양미술사 500여 년의 여정을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사계절 미술 시조를 총괄해 미술사에 깊이 남을 명작들의 레플리카전이다. 레플리카가 아닌 원작에 가깝게 모방한 복제품을 가리킨다. 레플리카로 구현한 작품은 원작의 웅장한 그림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전 세계 유적점 곳곳에 전시되어 있어 쉽

게 보기 힘든 거장들의 작품을 한 공간, 하나의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매력이다. 원작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구경하기 힘들 만큼 정교하게 구현한 레플리카 작품은 명화 원작을 관람할 때와 달리 가까이서 직접 만져보며 질감을 느껴볼 수도 있다. 이밖에 선보이는 명화 작품들도 다재다능한 예술가들을 활동해 세밀하게 재현한 것이다. 패브릭 인쇄물로 제작해 기존 회화 매체와는 다른 독특한 질감으로 원작의 감성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한다. 또 여기에 사용된 다재다능한 원작의 색감과 다채로운 정화적 복원하면서도 전통 회화와는 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단순한 재현을 넘은 혁신적

접근 방식으로 구현한 작품들은 색다른 시각적·촉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더불어 미술의 역사와 변화를 탐구해 보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또 미술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에 익은 작품도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전시는 6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르네상스부터 사실주의까지 아우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두 번째는 인상주의의 걸작으로 클로드 모네와 에두아르 마네의 명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세 번째 섹션은 후기 인상주의의 작가인 빈센트 반 고흐, 네 번째 섹션은 야수주의 앙리 마티스,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구스타프 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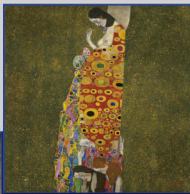


렘트의 레플리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네덜란드 꾸미는 명화 제철존, 이 외에도 오디오 도슨트와 포토존 제철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코너를 통해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윤민갑**

- 일시 2024년 10월 14일(일) 오후 1시~9시
- 장소 경기관여사숙경
- 금액 무료
- 문의 031-230-8267



1 '엘트 강변의 포플러'
2 '인상주의' 클로드 모네
3 '인상주의' 앙리 마티스
4 '인상주의' 에두아르 마네



5 '인상주의' 클로드 모네
6 '인상주의' 앙리 마티스
7 '인상주의' 에두아르 마네
8 '인상주의' 빈센트 반 고흐
9 '인상주의' 앙리 마티스



2024 <12 작곡가> 경기사나위오케스트라, 경기소리에 새로운 감성을 채색하다

경기도 현통 유상인 '12작곡가'
작곡가 12인의 상상력을 통해 12곡의
국악 관현악 작품을 새롭게 태어난다.



무대 위에 선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한·2 작곡가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작곡가를 다리 삼아 경기소리의 만나는 새로운 음향 찾기 프로젝트다. 경기소리는 주로 민요를 하는 전문 창작가들이 부르지만 민요와는 태생과 기원이 다르다. 민요가 민중의 기술에서 파어나 민에서 민으로 전해진 노래라면, 경기소리는 이보다 기교가 많은 노래로 전문 창작자들이 주로 불렀다.

다더 건시나위 기교적이고 복잡한 형식을 지녔다. 가창자들이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활동해 경기 12장가로 불리기도 한다. 장가의 뜰에 작곡가 12명의 작품을 더한 12곡의 국악 관현악곡이 오를 이번 무대는 전통음악의 사랑 음악 작곡가들이 장가의 선율, 소재, 분위기를 다양하게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제비'에 담긴 새소리에서 자연의 목적을 듣는다면, 다른 작곡가는 새의 눈에 비친 인간의 욕망을 살펴본다. 12장가의 대표 노래 유상인은 작곡가들이 만든 상상적 교차로가 된다. 누군가는 자연의 감성에 주목하고, 누군가는 절경을 예찬한 가사를



유상인 작곡가 '제비'에 담긴 새소리



김승환 작곡가 '제비'에 담긴 새소리

관현악 선율로 풀어내며 또 누군가는 황사로 말린 봄에 대한 향망을 담는다. 독특한 형식의 '술안개'는 국악 관현악의 또 다른 형식으로 재탄생되고, 평안가에 담긴 느낌의 미학은 바른 형태인의 시공간을 돌아보게 한다. 또 '형장'에 담긴 고통을 여러 국악기의 소리로 응시하게 되며, 그리움으로 빛나는 '방울'에 담긴 사연은 어느 순간 백일천하로 변하는 반전도 만날 수 있다. '산유'가 오랜 노랫말과 관현악이 하나가 된다면, 오순환가의 순창을 그리는 소리는 '봄'의 따스함보다 '약'의 치기움과 조주한다. 국악 관현악을 통해 일찍이 학인의 순간이자 12장

가가 새롭게 다뤄지는 한·2 작곡가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음향 찾기 프로젝트이자 12명 작곡가들이 동서양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소리를 탐색하는 시간이다.

윤한갑



- 일시 2024년 10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경기문화재단 대극장
- 금액 R석 4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 문의 031-299-6471 ~ 5
- 예매 1544-2344

<매달린 집>

집이 풀어낸 뒤얽힌 가족상

캐나다 희곡의 대가로 평가받는 마셀 트랑블레가 독특한 소재와 실험적 스타일로 창작한 <매달린 집>과 경기도극단이 재해석해 초연으로 새롭게 완성한 공연 <매달린 집>. 최영주 원로가가 날카로운 비평과 함께 경기도극단의 역활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사유를 보내왔다.

또 하나의 도전
90여 년 동안 자라는 경기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을 변경해 경기아트센터로 거듭난 지 5년 여의 시간이 흘렀다. 센터직으로 시간이 많았던 적도 있으나 갈고파 할 수 없는 세월이다. 아트센터로서 이 5년은 경기 지역, 특히 수원에 한창일던 지역 극단을 돌출보내던지고 수원 인근의 시와 서울을 아우르는 광역 아트센터로 향할 디라노기를 위한 탐색의 세월 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호선의 수안별당선 신 분향선 등 다양한 교향수단이 이글이글 발길처럼 경기아트센터는 분향 과거 경기문화재단 시절과 다른 광복 행보를 하는 중이다. 특히 19월 초 9월간 열린 <매달린 집>은 2022년

'캐나다 희곡의 발견 프로그램에서 찾아낸 국내 초연 공연이다. 경기도극단이 캐나다 현대 희곡을 직접 발굴해 번역하고 남쪽 공연을 선보인 지만 2년 만의 일이다. 과연 관객들은 캐나다 문드리를 작가 마셀 트랑블레의 희곡 근친상간과 야정남자, 동성애로 아찔한 기묘하고 특이한 3대 가족상을 풀어낸 <매달린 집>을 어떻게 느꼈을까?

마셀 트랑블레의 <매달린 집>
극장에 들어서자 무대 전면에 권고하게 지른 집 하나가 관객을 맞는다. 집 뒤에는 배경으

로 그려진 숲이, 앞에는 아들이 붙박이 있다. 공연은 1900년 세대의 장-루크와 마티유, 세바스티앵이 등장하며 시작된다. 100년 전 지은 이 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장-루크는 살아버려, 살아, 고로, 서로 등을 함께 지낸 아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린다. 장-루크와 마티유의 말을 통해 이 집은 생명이 태어났고 돌리마에 있으며 태광이 정면으로 비추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바야흐로 소리가 들린다. 1910년 세대인 빅투아르와 조지파가 등장해 장-루크와 마티유를 만난다. 빅투아르와 조지파 역시 집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들의 대화 중에 비명과 숲의 풍경, 햇빛과 달빛이 집에 스며든다. 그리고 잠시 후 1950년 세대인 알베르와 에두아르가 등장한다. 아들이 무대에는 1990년, 1910년, 그리고 1950년 세대가 흔재하게 난다.

3대에 걸친 인물들이 무대에 혼재하며 각기 상대의 대화를 전개함으로써 사시는 파편화되고 만다. 관객은 어딘가쯤엔 상에서 두 살마리를 훑어 다언의 인물에 대한 정보를 구축한다. 그 실마리는 집과 가족 관계다.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이 집이 호수를 마주한 전나무 숲속 흉나무집임을 알린다. 우물이 있는 기묘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엿볼 수 있는 반면, 땅 위를 떠다니는 듯한 신비한 느낌을 갖는다. 동시에 인물들의 밟지 않은 경계 역시 불만장하건 서사의 무게를 갖추게 한다. 빅투아르와 조지파는 남매지만 부부의 연을 맺고 있다. 기브르네를 아들 앞에서 얻은 열한 살의 아들이다. 이들은 지역 사회에서 용인받지 못하는 근친상간 관계로 도심을 벗어나 이 집에 살고 있지만, 빅투아르는 아들 기브르네에게 합법적 관계를 주기 위해

기묘하고 특이한 3대 가족상을 풀어낸 <매달린 집> 공연 모습.

▶ 네바다의 경우엔 주민들이 투표가 아니다.
▶ 앨라배마의 경우엔 주민들이 투표할 일은 없다.
▶ 캔자스. 애초부터 이렇다 할 남자들이 기대없이, 일제히 모든 투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투표권이 없었다. 한 정치가가 이따금씩은 통설적인 편견이다. 교육직이 없음을 느낀 장과 러셀은 앨라배마로 이주해 자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한때는 학교 교사의 직업을 겸하기도 하였을 터인데, 그러다 같은 편견 때문에 같은 해에 사임을 해서 30대에 결핵 3개조를 얻는 한편, 사임한 뒤에도 같은 편견 때문에 살았지만, 이 편견은 장과 러셀과 그 후자라는 가짜사나이가 옳다. 옳고도 승격적인 가짜사나이를 대신 한 천문학과 지구 과학 분야의 개척자이자 천문학의 아버지로 부각되어 가는 것이다. 아마도 러셀의 아버지는 근대과학, 동양학, 서양 남자들은 도덕적 소위재, 예식, 라비즘을, 여자들은 뉘엿뉘엿 보지 못하고 쉼 없이의 공부를 뉘엿뉘엿 보지

[illegible]

한편 사실상의 독립국으로서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더욱 구체화 실행되는 방향으로 계속 조속하게 추진을 꾀한다. 관측은 공민 전 체로써 소수의 독립을 추진하는 활동가들에 의해 대결을 추진해 나가며 청국과 일본에 대해 비판적으로 나누는 다수파에 공민 전반에는 이 운동의 추진을 수백에 달한다. 그리고 각 지방의 의회를 사해하여 구부흥회 조직을 만든 것은 더욱 확고한 것이다. 1910년과 1915년 그리고 1919년와 외산 스타일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모호한 이 운동의 방향은 더욱 적극적으로 9월을 독립의 날로 삼고 있다. 이점과 더불어 공민을 합일시켜서 3개의 연합회로 관측의 전국적 전개에 이르게 된다. 구부흥회 독립운동에 할 대상이 된다. 또 1906 구부흥회 사법위원 1인으로서의 독립과 민족의 전개는 같은 상황이다. 다른 것은 민족운동과 경제비밀주의와 구부흥회와 대결을 최후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 운동이

다. 또 수습 지역의 보수적 정서를 여전해서인지, 혹은 좀더 이슈의 대중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서인지 장-미르크와 마테유의 동생에 관계나 여중 남자인 에두아르의 성정체성 문제 역시 도드라지게 각인되지 못했다. 아니면 번역국의 참견에 빠져 인물의 심층에 배우의 느낌이 밀도 높게 다가서지 못한 탓인지도 모르겠다. 시각적으로 속속스피는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습을 통해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채길 수 도 있었을 법하다.



지역을 넘어 경기도국단의 방향

에달린 짧은 대장간식 극장 프로그램에서
는 보기 힘든 도발적인 내용에 사실상의 한
상주의 양식이 취해진 다소 실험적인 희곡이
다. 작적 정서에 묶이지 않은 풀림할 수 있는 공
연인 셈이다. 그러나 작자의 명성 때문인지,
혹은 이전에 선보인 நட무들 통해 홍보가
설되었기 때문인지 같은 극장의 이전 공연
들예비해 극장을 메우는 관객이 꽤 많았다.
예 해 였든 두 관공은 『요조반』은 본격적인 연극
을 벌여라 그 후 두드러히여 비록 애도, 일차
를 벌여 였든 또 다른 관공은 내용이 어딘지

일방적 인종 문제를 확인하고는 충분히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공공 극장으로서 일반 대중에게서 받는 것이 많은 이익을 해낸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공공 극장인 만큼 국정을 썼을 관객층이 아니라 극장 밖의 잠재적 관객 역시 끌어안아야 한다. 지역민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적극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실의 문제 혹은 지역민의 현실 문제를 실도 없이 파악해 진지하고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해야 하고, 또 이어지고 쉽게 전달해야 한다. 공통된 같은 모범 타이틀도 모른다.

특히 지역의 공공극장이 공연 제작 전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서 화제가 될 만한 공연, 그 자체에서 인기(매일된 집)의 선택은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을 화두로 연구서 《세속사피어라는 이름의 극장》 그리고
고문헌, 《드라마투르기에 관한 무언의》와 원문집 《세
간 언어 서법》을 연극 관련 공저를 출판했다. 이 외에 《무
한지극 드라마투르기에 참고서》, 《연출자를 위한 연극》을
비롯해서 다수의 희곡을 번역했으며 연극 활동을 거행했다.



1. [매일] 집 X은 다면적인 3세대가 존재하여 전개되는
시사를 보여준 공간이다. 그 무대를 집 안위의 공간으로
문화를 시공하여 건축적 기교를 입혔다.

〈공동주택 우리동네 콘서트〉

우리 동네,

내 집 앞에서 즐기는 공연

집 앞 가까운 장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다양한 공연예술을 만나는 시간.

경기도 내 주택 곳곳에서 열리는

(공동주택-우리동네 콘서트)는 문화적 활용 시간을 선사한다.

〈공동주택-우리동네 콘서트〉는 관객을 직접 맞이하는 문화 복지 공연의 일환으로, 도민의 문화 향유 차원에서 진행해 왔다.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신청을 받아 무대를 선보이는데, 공연 타이틀도 그림자 놀이 경기도 곳곳의 주택단지를 직접 찾아가 입주자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공동주택-우리동네 콘서트〉는 실제로 많은 도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공연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올해 공연은 기존과 다르다.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이 공연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순수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공연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공연을 관람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30회를 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경기아트센터는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31개 시군의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하우스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연 신청서를 받은 후 현장 답사를 다녀와서 시인 협회 과정을 거친다. 담당자는 도내에 아파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곳이 5,000여 곳이고, 공연을 할 만한 장소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밝힌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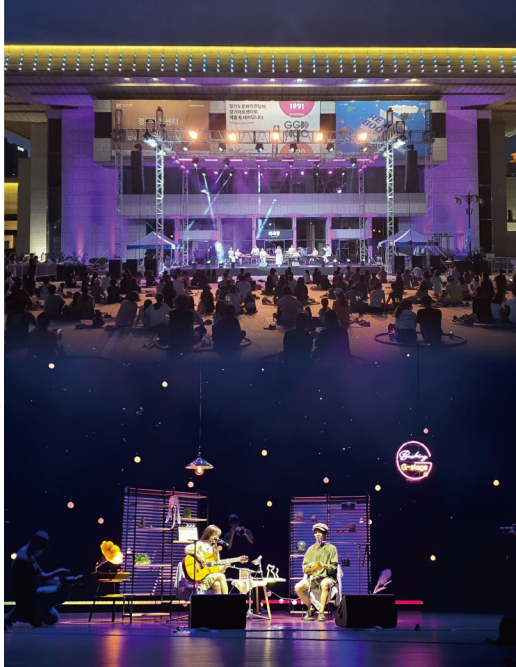
〈공동주택-우리동네 콘서트〉는 경기아트센터와 도민 모두에게 의미가 깊은 공연이다. 익숙한 사물을 갖춘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 등 주거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열리고 있지만, 경기아트센터의 〈공동주택-우리동네 콘서트〉는 여러 공연과 차별된다. 우선 20개가 넘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 단체를 엄선해 라인업을 선정한다. 공연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예술단체



1면에서부터 1면에서, 서울에서부터 열린 공연. 2면에서부터 2면에서 열린 공연. 3면에서부터 3면에서 열린 공연.

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장소와 성격에 맞는 공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도민들이 문화적으로 맞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대 또한 예술단체의 성격에 맞는 음향과 조명 등 최적의 시스템을 갖춰 훨씬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그뿐 아니라 공동주택과 예술단체가 손발을 맞춰 입주민들이 공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에 진행된 공연은 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무대였다. 관람석에 의자도 비치하고,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가림막과 대형 선풍기도 설치했다. 각 아파트 관리소와 입주자 대표단이 다양한 간식과 음료를 준비해 입주민 관객의 귀와 입 그리고 마음까지 즐겁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공동주택 공연의 묘미가 아닐 수 없다.

무더위가 풀리고 선선해지는 가을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내 집 앞에서 가을날의 콘서트가 열릴 날을 기대하고 있다. 9월과 10월은 추석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이 많을 때도 20여 회 개최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하반기 내내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공연은 계속된다. 경기아트센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대를 설계하며 다음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공연 담당자는 "도민을 위해 '우리동네 하우스 콘서트'를 진행한다는 거부감과 긍지를 갖고 열심과 열정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공동주택-우리동네 콘서트〉가 앞으로 비련과 복잡다단한 일상을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 선사하는 경기아트센터의 진정한 문화 선물 무대가 아닐까. 윤기환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계획 발표식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장

기회의 경기를 도정 슬로트로로 내세운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장려할 기회가 활짝 열린다. 9월에 개최된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계획 발표식 현장에 파견 장애인들을 향한 꿈과 희망의 메시지.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2023년 11월,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 시간에 발의한 장애인과 청년 재능을 갖춘 경기도저자기 작곡 수용해 추진된다. 운영은 경기문화재단 오케스트라, 경기사우오케스트라 등 경기도예술단을 이끌고 있는 경기아트센터가 맡는다. 도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우비 2천씩, 40명 내외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12월 9일 장애인 오케스트라 출범을 앞두고 9월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창단 계획 발표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참가한 김동원 도지사는 “여기 인주를 합류하여 한다면,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은 창작의 협력의 소산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현재 양성형 오케스트라다. 음



악이나 악기 연주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이 참여해 교육을 받고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연주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김동원 도지사는 “1호 가우비를 넣기”라고 적극적인 지원을 자청하며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통해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여 자유를 누릴

11월 9일 계획 발표식에서 축하와 함께 도내 19세 이상 장애인 19명 중 10명 정도가 그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계획 발표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오케스트라를

수 있는 기회를 경기도에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창단 계획 발표식은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홍보대사인 원은 피아니스트 이훈과 방송인 김광민,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 및 장애인 복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축하 공연으로 장애인 특수학교인 하나성 성서학교의 ‘성광 오케스트라’, 성남 교육지원청의 ‘유니온 오케스트라’, 고양 홀트학교의 ‘에그나 & 국민오케스트라’가 멋진 연주를 펼쳐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제가 11월 9일 창단식은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하며, 실기 평가를 거쳐 11월 중 선발한다. 모집 분야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등이다. 단원들 이룰 자취는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해 10월 중순에 채용할 예정.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10월 10일 발표하는 경기아트센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단원들은 2인외의 활동 기간 중 재능을 갖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키우기 위해 건물 봉사활동 주 2회 집중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 오케스트라 등과 다양한 협업도 추진한다. 2년의 활동 기간 중 눈높이를 맞춘 집중 교육과 다양한 연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도내 장애인 예술 활동과 성장을 응원하고 함께 누리는 전국 최초의 장애인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운영하기 위해 도민의 기금 후원과 악기, 합주 참여, 시선, 영상 등 재능 기부 및 자원봉사 후행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도민 누구나 장애인 예술 활동과 성장을 응원하는 서포터즈가 될 수 있다. 꼭 서포터즈가 아니어도 괜찮다. 열린 마음과 관심, 애정 어린 시선으로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하고 따뜻한 마음을 기부하면 된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이나 편견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화합과 화합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윤관남



GYEONGGIDO DISABLED PERSON ORCHESTRA

서포터즈 모집

모집기간 _ 상시모집

모집유형 _ 후원,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주요혜택 _ 공연초청, 활동증명, 굿즈제공 등

참여방법 _ 홈페이지 참조 또는 우측 하단 QR코드 스캔



Art and the City
활기찬 문화예술의 도시, 제주시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서는
독립한 공연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Attraction
예술가 커뮤니티 센터, 온두라스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예술가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한다.

Robert Taft
백악관, 워싱턴 D.C.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연주하는 음악가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On & Off
일과 휴식과 감동하는 계절
이 가을의 시간 내 고향
무도 인물루터의 546 제로

Art Scene
The Power of
Korean Art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한국 예술의 한주소

활기찬 문화예술의 도시, 에든버러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의 자난어름은 축제 열기로 가득했다.
매년 다양한 축제가 열리며 독특한 예술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에든버러에서는
특별한 공연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에서 비행기로 1시간, 기차로 5시간 걸리는 에든버러는 같은 영국 내에 있지만 각기 독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영국 United Kingdom 은 한데 이어 있는 잉글랜드(England), 에든버러가 있는 스코틀랜드(Scotland), 웨일스(Wales),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로 구성된 연합 왕국이다. 스코틀랜드는 엘프족의 전통을 자아내고 고유한 음악, 문학, 춤 등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그들만의 강한 정체성과 독립성을 자랑한다. 그중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는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에든버러성은 군사 요새이자 중세 왕권의 중심지였고, 1707년 연합법 제정 이후에는 정치에서 문화 중심지로 변하여 예술과 학문의 도시로 명성을 쌓았다. 에든버러의 역사적 대표 명소와 건축물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아서 코넬 도일은 구시가의 복잡한 골목에서 섰을 때, 조앤 K. 롤링은 에든버러성을 바라보며 *해리 포터*를 탄생시켰다.

오늘날 에든버러는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문화 도시 중 하나로, 매년 여름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술 축제인 동시에 열린다. '국제 페스티벌과 페스티벌 프런티어'에서는 공연예술 작품을, '아트 페스티벌'에

서는 현대미술을, 국제 필름 페스티벌에서는 영화와 '북 페스티벌'에서는 문학을 선보인다. 다양한 장르가 하나의 도시에서 함께 펼쳐지는 독특한 예술의 장으로 전 세계 예술가와 관객이 모인다. 특히 프린지 페스티벌은 에든버러를 축제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한 핵심 축제로, 수백만 명의 방문객에게 매년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며 에든버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행의성과 다양성의 상징,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런티어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은 1947년에 시작된 전통 있는 예술 축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문화 회복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축제 참가자들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에서 예술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매년 8월 3주 동안 열리는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에서는 오페라, 음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이 열린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런티어(Edinburgh Festival Fringe)는 국제 페스티벌과 같은 해인 1947년에 시작되었는데 그 기원이 흥미롭다. '프린지'라는 한



© The Royal Edinburgh Military Tattoo



©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국어로 '가장자리' 또는 '주변'이라는 뜻이다. 당시 국제 페스티벌에 초청받지 못한 아마추어 극단 8개가 자립적으로 공연을 펼쳐면서 시작된 프린지는 에든버러 페스티벌 주변에서 열린 비공식 공연이었다. 공연은 큰 호응을 얻었고, 점차 규모가 커지며 공식 축제로 자리잡았다.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과 페스티벌 프린지를 비롯한 여러 축제가 함께 열리는 동안 도시는 활기차고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차며, 세계 각국에서 모인 예술가와 관객이 문화를 즐기고 교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도시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공연과 피로만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거리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페스티벌 프린지의 특징은 완전한 개방성으로, 어떤 예술가나 공연 단체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다양성과 창의성의 상징이 되었고, 전통 예술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세계 공연 관계자들이 새로운 작품을 발견하고 신예하는 마당과 같은 플랫폼 역할을 하며, 이곳에서 선보인 작품은 국제 무대에 오르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이처럼 예술가들에게 창의적 도전과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페스티벌 프린지는 세계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다채로운 예술 축제다. 그 덕분에 에든버러는 전 세계 예술과 실험의 핵심지



1 에든버러 축제 중 하나로 열리는 '프린지 에든버러' 일리어드의 하루의 모습이다. 그 해는 비공식 일리어드를 위한 축제 분위기를 더하는 '프린지 에든버러 일리어드'라는 행사도 에든버러의 주요 행사.

로 거듭나면서 현대 예술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곳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축제는 관광산업, 숙박업, 요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활동을 불러일으켜 에든버러를 글로벌 문화 도시로 부각하고 있다. 더불어 도시는 공공 공간을 예술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공연장을 마련함으로써 도시 환경과 시민 삶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2024 예쁜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풍경

올해 8월에 열린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는 58개국에서 온 공연자들이 참여해 262곳에서 총 5만1,446개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처럼 방대한 공문을 소화하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공문이 한 국경에서 잔잔히 미끄러져, 빠른 주파로 전송되는 팩스방식, 프린터의 도파관 복제이다. 15분에도 무더기로 잔잔히 미끄러져 가는 공문을 준비하는 과정은 이 속세의 숨겨진 놀라움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고정된 사설 보도는 이렇듯 지은 회소현의 소문과 도구가 될 웅덩이다. 5년, 446개 공문 중 364개는 무료, 577개는 '지은 가짜'로 분류된다. 방식으로 진행된 이 공문들이 자유롭게 감람도를 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무더기 없이 참여하는 것은 화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페스티벌 프르지에서는 '정신아리랑'을 바탕으로 꾸민 (아리
All The Spark of Korea)를 아샘블리즈 메인 홀에서, 시를 사랑'이라는 주
제로 붙여 (You and I: The Musical)을 아샘블리즈 레코프도트에서
서 공연했다. 시대적 어감을 담은 안국 (흑백대립(Black and White Tension)),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이해 갈아저서(All Dogger Post)) 등의 한국 작품
도 함께와 진행과 현대적 주제를 아우르며 페스티벌 프르지의 다양
성을 더욱욱 폭넓게 다룬다.

전통과 디지털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

[illegible]

연극에서부터 농담까지 모든 공연의 축제적 성격 행사의 장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유럽의 일련의(리투아니아의 *Trybuna Teatralna*) 페스티벌과 더불어 국제 페스티벌에 비례 집결되는 고지마의 비극인 전통은 의식성 함께 노출 수 있는 독특한 강점을 제공한다. 한편, 예멘의 전통의 고문서나 문헌이 속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공연은 비극적극에 대한 강요를 분산시켜 예멘의 사회 전통적 이념들을 한층 확충한다. 화려한 의상과 절묘한 공연의 퍼포먼스를 통한 연출은 불타는, 예쁜, 호우 연금 칠 마프드 렌즈 개과 열광적 관객을 미대사한다. 스무스 의상과 절묘한 춤동여 귀와 공연까지 첨가했다. 예멘의 비극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신화적극에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것을 보여준다. 예멘의 의상과 춤의 전통을 노출 수 있게 한다. 다양한 문화에 축제는 예멘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절묘한 문화 도시로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전통과 현대, 예술과 역사적 전통을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물장개은, 『예술과인간』 전권집장자 공판집합리스트, 영국 런던에서국립과 공판
을공부하고, 다양한 공판을집하며 현재 있는 무대를공부하고 있다.



19편에서 거대해서 만난 뮤지컬 (You & The Musical) 로서, 그 어떤 나라의 역사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보이는 것, 그 어떤 나라의 역사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예술과 과학의 협연, 콘서트홀

차밀한 건축은 천상의 소리를 빛어낸다.
깊고 긴 울림을 남기는 콘서트홀을
탐미한다.

예술과 과학으로 집결된 클래식 음악 공연장은 또 하나의 약가나 전매권이다. 연주자와 선율이 관객의 귀와 가슴에 닿기까지, 그 얼마나 동안 무대와 배면, 찬창이 소리를 주고받으며 협연을 이어간다. 이처럼 집결을 외에도 다양한 반사율을 내기에 홀 내부의 모든 요소가 울림에 영향을 미친다. 객석 배치, 찬창 높이와 폭, 마감재, 심지어 의자 소재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니 차밀한 계산과 정교한 기술이 따라야 하는 건 필수다. 즉 홀의 모든 시각적 요소는 곧 청각적 요소이고, 시각적 유희만을 위한 장식이나 설계는 없다고 보면 된다. 콘서트홀은 어느 건축가와 음악 전문가가 설계하든 목적은 단 하나다. 풍부한하면서도 깨끗한 소리를 빛어내는 것. 다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과 해석이 제마다 다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예술이자 과학이다. 세공하듯 뛰고 다듬고 수만 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테스트를 거쳐 탄생하는 콘서트홀. 음향설계의 거장 도모타 예스하시는 이



렇게 말한다. "1990년대 컴퓨터 기술이 가속화되면서 음향설계 과정도 크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음악적 피로만의 미스터리한 부분이 기술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음향은 과학적 정밀함과 예술적 해석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필요로 한다." 세계적 콘서트홀을 통해 음향예술을 탐미해 본다.

엘브탈하모니

엘프탈하모니는 에센을 가진 '엘브탈하모니'는 현대건축의 걸작이자 도시재생 건축물의 선례로 꼽힌다. 프라하에서 수상자인 스위스 건축가 헤르조그 & 드 뢰름의 손에서 탄생했다. 이들은 강철 스프링 위에 공연장 건물을 띄우는 플로팅 홀 개념을 적용했다. 항구의 옛고동 소리가 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홀의 음악소리가 같은 건물 내 호텔과 아파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항구의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은 이 건물은 1960년대 컷팅 홀 위에 새 건물을 증축한 것으로, 건물 위에도 다른 건물을 지은 셈이다. 붉은 벽돌의 옛 양적은 그대로 살려두고, 원관 또는 피노 형상을 닮은 새 건물은 유리 소재를 사용해 현대적 마감을 더했다. 과거와 현대, 보존과 개성을 적당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상하부 전체 26층으로 구성했으며, 8층짜리 옛 창고 건물이다. 붉은 건물과 유리 건물 사이를 따라가는 경관에서는 항구의 도시가 아우라진 항구의 경관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다. 콘서트홀은 총 3개를 갖췄는데, 그중 핵심은 2,100석 규모의 그레이트홀. 거대한 형이 오감 반사율이 드러워진 무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6개 층의 객석, 벽과 천장을 흡수해 채우고 있는 울림 모



ONIE



양 의 간식 타임 조각이 히로시를 이루어 음향을 조율한다. 특히 천장과 벽, 난간을 감싸고 있는 1만 개 이상의 산호초 길은 석고판은 맞춤형 음향 패널로, 울림불통한 표면은 소리를 흡수하거나 산란시킨다. 1만 개의 석고판 형태로 각각 다른데, 이는 소리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파네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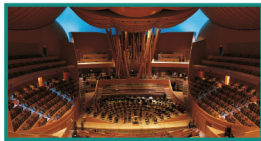
또 2,100석 중 지하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화석이 연도록 설계에 구식구식까지 균일한 소리를 전달하는가 하면, 공연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전향 시간을 조정해 깨끗하고 풍부한 음향을 유지한다. 그레이트 홀은 음향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보존한 공간으로 평가받는데, 이는 LA 월트 디즈니 콘

서트홀과 필하모닉 피리 등 세계 유수의 콘서트홀을 설계한 도요마 아사히사의 솜씨 덕이다. 대형 오케스트라처럼 사운드가 풍부한 공연에서 열브릴하오나 그레이트 홀의 진가를 재감할 수 있을 것이다.

● Platz d. Deutschen Einheit 4, 20457 Hamburg, Germany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은 완공까지 16년이 걸렸다. 1987년 월트 디즈니의 부인 월리언 디즈니가 LA에 5,0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공연장을 건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시 신장된 건축가는 프랭크 게리. 1991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그의 설계안이 공개됐지만, 파격적인 디자인과 LA 속인 폭풍 사해, 불경기로 인해 10년 동안 발뚎한 잔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1997년 발비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완공됐고, LA시는 프랭크 게리가 제안했던 디자인과 유사한 건축안이 세워진 스페인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도했다. 우여곡절 끝에 1999년 프랭크 게리에 게시 재계를 요청해 2003년 마침내 베일을 올렸다. 6,000개가 넘는 스테인리스스틸 패널로 장식된 외관은 그로테스크로 웅장하고 대담하다. 프랭크 게리는 내부 형태를 먼저 잡은 뒤 외관 디자인을 결정했다. 홀은 꽃술, 외관은 꽃잎처럼 표현하고자 했고, 그 결과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7개의 은빛 꽃잎이 피어



나게 되었다. 내부의 벽면과 천장은 파도치는 듯한 곡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미적 요소를 넘어 음향적으로도 소리의 반사와 확산을 돕는다. 홀 형태는 빈야드 양식이다. 음향만 고려한 설계는 아니었다. 게리는 관객 사이 임묵적인 위계질서가 있는 말발굽이나 부채꼴 형태보다 누구나 평등하게 감상할 수 있는 마음으로 빈야드를 고집했다. 마감재는 약기 소리가 잘 반향되도록 최적의 소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벽과 천

장은 풍부하고 자족 가능한 소재인 티끌리스 장나무를 사용했고, 바닥은 오크로 마감해 중후한 매력을 더했다. 콘서트홀이 완공된 뒤에도 첫 공연의 박을 울리기까지 반년이 더 걸렸다. 새로운 콘서트홀이 낳은 LA 필하모닉 단원이 음향을 살필하고 익숙해질 시간과 홀을 미감한 자체가 제마다 자리를 잡아갈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야말로 한 뼘 한 뼘 빛은 공간이 자라나.

● 11 S Grand Ave, LA, CA 90012, United States



WALT DISNEY CONCERT HALL



PHILHARMONIE DE PARIS

필하모니 드 파리

리 빌트 공간에 거대한 설치 작품처럼 자리 잡고 있는 '밀하모니 드 파리'. 곡선과 직선의 대화가 특히 인상적인 데, 신과 연으로 이루어진 지붕이 비단 주름을 달은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 34만 개 의 알루미니움 패널로 뒤덮은 은빛 파사드는 역동하는 캔 바스처럼 석양이 질 때는 황금빛을, 초린 날에는 회색빛을 띠며 시시각각 변주한다. '빛의 미술사'라 불리는 장 누벨이 설계한 곳으로, 건물에서 중심을 이루는 공간은 파예르 불예츠 그랜드 홀로, 외관만큼이나 파격적이다. 장 누벨이 내부 설계 시 가장 고심한 부분은 무한의 음악 악물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홀에 들어서 는 순간 그의 길은 고민을 단번에 헤아릴 수 있다. 텅 빈 공간에서도 선물이 보이고 틀리는 것처럼 느껴지나 말이다. 유려한 곡선 형태의 2층과 3층 객석은 두드러

워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어드 구조다. 홀을 이루며 무대를 감싸는 모습에 포도밭과 같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음이 넓고 깊게 퍼지는 것이 특징이다. 음향설계를 맡은 도요타 아쓰시사는 빈마드 구조를 채택 하되 2층과 3층 객석이 무대를 향해 돌출되도록 설계했 다. 객석이 2,400석이나 되지만 무대에서 가장 먼 객석 까지의 거리가 32m이 규모의 콘서트홀은 일반적으로 40~50m 정도다(반에 되지 않아 모든 좌석에 소리가 고르게 퍼진다. 이는 관객과 연주자 사이의 시각적·청각적 친밀감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천장에는 부유하는 듯한 구름 모양의 음향 반사 패널을 설치해 빈마드형의 위약 절인 반사율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준다. 선율을 매개로 외관과 실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필하모니 드 파리. 건 물 자체가 음악이자 연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21 Av. Jean Jaurès, 75010 Paris,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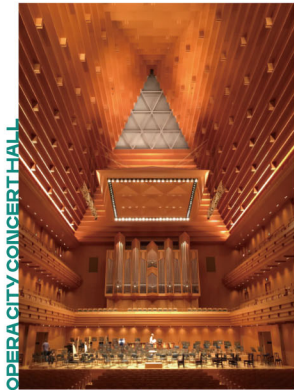


오페라 시티 콘서트홀

단장하고 고요하다. 피라미드 모양의 천장과 삼각형으로 난형에서 스며드는 채광이 따스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오페라 시티 콘서트홀'. 홀은 단아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교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이런 시각적 요소들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으며, 5년에 걸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탄생한 결과물이다. 피라미드형 천장을 장식하고 있는 규칙적인 나무 블록과 홀은 음향 반사를 조절하며, 무대 위케노피는 사운드 방향을 전환시킨다. 1,632석 규모의 홀은 나비 약 20m의 좁고 긴 직사각형으로 디자인했다. 전형적인 슈박스* 구조다. 유럽의 전통적인 콘서트홀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태로, 오스트리아 빈의 무지크페러인 황금홀,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보스너 심포니 홀이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슈박스 는 보통 1,700석 이하의 규모에 적합하며, 평행한 측면에서 퍼져 나오는 풍부한 초기 반사율이 매력적이다.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미감재다. 천장뿐 아니라 무대와 벽면, 의자와 객석까지 내부 전체에 목재를 사용해 소리의 산란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풍부한 저음을 만들어낸다. 홀 전체가 마치 한여름이건 것처럼.

● 3 Chome-20-2 Nishishinjuku, Shinjuku City, Tokyo 163-1403, Japan

● 10년



OPERA CITY CONCERT HALL

청년, 음악과 무대를 욕망하다

〈2024 경기청년예술기획무대〉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서양음악과 국악 아티스트 두 팀을 만났다. 정모도, 나야도, 경합의 폭과 깊이도 다르지만 음악과 연주에 대한 진중한 사유와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한 모습은 닮았다. 한국에서 무대 위 예술가로 자리 잡는 것이 녹록치 않은 현실을 반추하게 되는 가운데 희랍과 공경봉 보게 된 솔직하고도 유쾌한 대담이다.

현대음악으로 뛰어나는

피로판스 창작자이자 타악기 연주자, 전유영
아면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악대학교에서 클래식 타악기를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현대음악을 더 깊게 배우고 싶어 유학길에 올랐다. 지금도 유학을 오가며 왕성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고, 귀국 후에는 솔로 타악기 연주와 타악기를 매개로 한 창작 피로판스를 선보이고 있다. 내가 주력하는 장르는 '뮤직드라마'로 뮤지컬부터 오페라, 전야음악까지 포괄하는 음악극의 범주를 아우른다. 아직 국내에는 20세기 이후 1900년대 음악 연주자가 많지 않고, 이 장르를 다루는 팀도 거의 없는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해서 많이 소개하고 싶다.

창작 피로판스 활동은 어떤 것일까. 현대음악 작곡가의 곡을 타악기 소리의 연주하는 행위를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은 창작 피로판스로 선보인다. 처음 처음부터 글과 지가 함께 큰 틀을 잡고 작품을 글과 아면 악기보 어떤 곡을 연주할지 구성하는데, 주로 시를이나 소개, 자전 그리고 공연을 하는 공간과 고유한 장소에서도 영감을 받아 실감의 무대를 만든다. 또 내가 만드는 공연에서는 항상 언어와 목소리가 들어가는 실험적인 연출 *** 피로판스를 보여준다. 현재 전유영 프로젝트는 타이틀 아래 타악기를 이루는 소재를 탐구하는 '열성 시리즈'를 작업하고 있다. 〈경기청년예술기획무대〉에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나. 메일 경기가이드센터 일을 하면서 저곳에서 초창기에 연주를 많이 옮겨, '저무대에 맞는 레퍼토리를 내가 찾고 있을거야' 생각

격한 적이 많다. 내가 하는 뮤지컬이더 작업의 성숙 무대와 격이 떨어진 클래식 진용 공간이 아닌, 미술관 등 경계가 없는 장소를 선호해 찾기 때문이다. 마침 그즈음 더 활발하게 연주하길 싶었는데 기회가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 올해 초 개인 사업으로 인해 3-4개월 쉬고 난 후 작업도 잘되지 않고 답답했던 터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 경쟁하기 싫었다. 진짜 많은 길 내려놓는 상황이었다. 이미 10년 가까이 프로 연주자로 꾸준히 공연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클래식 음악에 맞는 전통적 레퍼토리가 아니라 맞지 않을 수도 있었다. 실망지만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음악을 하고 있다, 어떤 연주자가 되길 바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또 오디션 장소였던 소극장에서 내 연주 소리가 어떻게

게 울리는지도 너무 궁금했고, 프로 연주자에게 내 음악을 보여주려고 생각했다. 경쟁하길 바라는 건 좋은 선택이었을 거 같다. 이후 스스로 용이하게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마음과 자제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다. **9월 말 공연하는 〈경기청년예술기획무대〉에는 어떤 곡을 연주하나.** 프랑스 작곡가의 그레파티라는 1980년대 작품이다. 그레파(피우스트)에서 한 구절을 뽑아 언어를 곡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문장을 거꾸로 소리가 나도록 넣은 것이 독특하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혹은 영어가 없는 어떤 소리로라도 표현하는데, 작곡가가 언어의 소리와 문장지극에 영감을 놓았다. 연주자가 먼저 고개를 들고 어느 방향을 쳐다보아 하기도 다채롭게 하게 적혀 있다. 타악기는 연주자가 악기를 직접 고르기 때문에 연주자마다 음악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악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복도 중무기 다양하다. 음조 조절이 가능해 유산을 통해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점이 비로 타악기 음악의 매력이다. 이번 무대는 스킵이 아닌 손으로 악기를 치면서 언어를 입히는 연주와 내 음악 색깔을 잘 보여주면서 관객에게도 신선하고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앞으로 어떤 연주자, 창작자가 되고 싶은가. 관객에게 동시에 작곡가들의 음악을 잘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싶다. 타악기 피로판스를 예기할 때 내 이름이 떠오르던 여인이 있을 것 같다. 내 음악이 마음에 와닿는 지점 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지만, 직접 해보고 거친 방식의 연주라 듣는 이에 따라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 현대음악을 스스로도 어렵게는 선전전을 바꾸고 싶다고 하겠지만, 나는 그럴 오히려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장모도 있고, 이 안에서 생각했다. 꽤 다양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연주자가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현대음악 안에서 또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살고 싶을 거라 생각한다. 연주자이자 창작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기청년예술기획무대〉를 위한 청진기의 타악기 연주하는 전유영, 아면



재능과 열정에 흥과운치를 더한
국악 연주팀 흥치

[illegible][illegible][illegible]

한 역사는 어떤 형태로 연구하느냐. *** 학의 기원과 관측하는 속도는 모두 다르다. 언어학에 관해서는 최초의 가장 확실곡으로, 언어의 근원 거름과 왜곡에 대한 신조, 해설, 신조 신조 등이 있다. *** 갈릴레오 부자 기 갈릴레오는 타락기(1600)의 수평선 안쪽의 시를 놀이도 있지만, 타석은 주로 투주한다. 대 부분의 곡선 비주자 곡선 역학을 설명. 이런 연구는 필수적으로 불완전하다. 일교수이정형 한 역사는 일이 있을 땐서 리와 연과 수 역으로 투주. 신조의 종류에 따라 장구구 수 역으로 발차주다. 신조의 종류는 순 형기, 일성기, 총기, 수구, 역의와 사 생비당이다. 물결은 3분, 길이는 8미터. 강과 구와 함께 아이라를 붙이는 국적 인 양을 설명한다.

해마다 (국가정책회의가) 회합한다는 이름의
대회가 있다.*** 국가는 다른 정부의 움직임에 비
해 적지않다. 반대로 보면, 다른 정부에 비해
정 해를 보아주고 있다. 그런 이유로는 오히려
비판된다.*** 우리 정부는 정말로 재미가 없다.
이제 거기까지. 정말로 흥미를 잃어가는
데다 강철 다짐과 온통 거기가 생긴 것 같다.
10. 국민은 오직 오욕에 관심이 있다.*** 만일
국정청과 경제기획위원회 하위국 행정부를
크리면서 하기 하고 실적을 하는, 이오
그것을 해서 내는 것이, 실은 국민과 반대
되는 방법이 아니라 같다.*** 국민 공권은
보다 보인 우리와 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물론 행정 선물이 있다. 보다 나은
것을, 어떤 방법이 공권보다 낫고 있다는
의견은 하루에 나왔을 것이다.*** 정치
적 관행, 특히 한 국가의 다른 정부에
한정해서 우리 국민에게서도 온통 우리
주변에 통용되고 있다.*** 여기까지로 적어도
사 안방의 활동을 하여 후속도 없었어야
실 공 국국적으로도 내 민주에 스스로 만족
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한
인민을 위한 복지와 발전, 스스로 기꺼워하고
인생을 무대에서 배우고 싶은 목표가 있다.

The Power of Korean Art

지름,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한국 예술의 힘과, 사치를 넘겨 성장하고 있는 태도도 들여다본다.



한국 오페라의 성장과 미래

전설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스승이었던 에토레 캄포칼리니는 "미려한 오페라 강국은 이탈리아가 아닌 한국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1980년대 당시 캄포칼리니의 예언은 꿈같은 소리로 여겨졌다. 그런데 2024년 현재, 그의 말이 더 이상 허무하다는 형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여러 오페라에서 느낄 수 있다.

1980년대만 해도 서울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성악가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점차 늘어 이제는 세계적 오페라극장에서 활약하는 우리 성악가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됐다. 테너 백석 중은 지난해 영국 런던 로열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한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의 주인공 삼손으로 데뷔했고, 올 해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푸렌드트〉의 칼바로 왕자 역으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마쳤다. 테너 이용훈 또한 백석중에게 앞서 세계 최고의 오페라극장에서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프라노 임정혜 역시 라커스 오페라하우스에서 "The Power of Korean Art"라는 한국인 최초로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극장에서 아리아노를 노래하고, 최근 국립오페라극장에서 〈수레바퀴 위의 타이틀〉을 맡는 등 왕성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해마다 성장세가 뚜렷한 한국 음악가들의 국제 콩쿠르 수상 성취율 중에서도 성악 부문 성취는 단연 돋보인다. 2011년 소프라노 홍혜민이 벨라루스 벨라아르츠허스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우승했고, 2014년에는 소프라노 황수미가 최고 자라로 올랐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버리톤 김태환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세계 3대 음악 경연 대회로 불리는 벨라아르츠허스 콩쿠르에서 아시아권 남성 성악가가 우승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테너 클라우디오 도밍고가 1993년 창설한 오페라다미아 콩쿠르에서도 황석예가 1인 공연이 포함된 이후 우리 성악가 여럿이 우승을 거뒀다. 특히 최고 권위의 콩쿠르 중 하나인 영국 카디프 콩쿠르에서도 2021년에 버리톤 김태환이 중점 1위를 차지했다. K-팝이 세계를 휩쓰는 동안 K-성악 또한 자국작곡 성정해 온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제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예술의전당이 영국 로열 오페라하우스 프로덕션을 그대로 들여온 오페라 〈오텔로〉를 공연하면서 호평을 받았고, 9월에는 서울시오페라단의 〈토스카〉 공연에 '토스카의 현신'이라 불리는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우가 토스카로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다. 10월에는 솔로페라단이 잠시 올림피케스트라극장에서 2024 오페라 푸렌드트-아레나 디 베로나 오페라를 공연한다. 이 공연은 이탈리아 아레나 디 베로나 페스티벌의 오페라 부문에서 테너로 출가한 것으로부터, 여성 지휘, 연출 등의 요소가 그대로 재현될 예정이다. 100년 역사를 가진 아레나 디 베로나 페스티벌의 오페라가 한국에서 처음 공연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불러 모은다.

이처럼 인위에서 이뤄지는 한국 오페라의 악동과 관련 해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한다. 한국의 영향력이 오페라 분야에도 미친 것이다. 과거 해외 음악가나 연주 단체에 한국은 주로 일본에서 공연할 때 함께 뒤에서 돌보는 자역이라는 인상이 강했고, 우리나라의 존재감은 상당히 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영국 로열 오페라하우스 프로덕션이나 아레나 디 베로나 페스티벌 프로덕션들이 한국 극장에서 재연되고, 세계 정상급 성악가들

이 한국을 방문해 전역 오페라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 오페라의 경쟁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수준의 단체나 예술가를 초청하려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한국의 예술의 출연료를 감당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향후를 통해 국가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단독 공연을 위해 방문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겠다. 올해 한국 오페라의 활발한 움직임에는 여러 한 해를 기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홍수현, 오페라 원로인, 단국대학교 문학박사, 한국 예술계 저자 중 하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다. 동아리와 오페라를 창작, 공연한 단국대 학생들과 서울 필리모닉스, 여러 편의 공연 기획과 연출도 했다. 오페라와 모든 예술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 '교류'하는 한국 미술

최근 파리 총선거 1구의 피노 첼레에서에는 한국 작가의 작품이 화제였다. 보르디 작가로 알려진 김수자의 대표작 '호수-물자극'이다.

파리의 주요 현대미술관으로 꼽히는 피노 첼레전은 지난 9월 세 기관에서 김수자의 '호수-물자극' 프로젝트 작가를 초청했다. '백자수'라는 뜻이 이 프로젝트는 작가에게 전시의 전권을 위임했다. 이종우와 함께, 경제와 정치성에 관해 작업해 온 김수자는 이번 전시에서 미술관 중심에서 전시관의 벽을 거울로 뒤덮었다. 안도 다다오가 건축한 아름다운 원형 홀의 천장에 비아코노 쏟아졌고, 환경이 불분명한 초상적 공간에서 관객들은 천천히 걷고 숨 쉬며 스스로 별자리가 되었다.

김수자뿐 아니라 올해 한때 데이트 모던에서 서도호 개인전이 열렸다. 과거 한국 미술의 해외 진출하면 작사뿐, 이후엔 김수자 등 근현대 미술 작가가 거론되었으나, 최근 해외에서 인정받은 한국 작가의 층이 두꺼워졌다. 특히 30대 젊은 작가들이 무대를 보인 다. 올해 테이트 모던에서 아미레, 베티온 에스키 시메에서 전한선, 런던 타워우드로에서 정하민이 개인전을 연다. 또 서울에서 9월 첫 주 글로벌 아트 페어 '프리즈 서울'이 열렸고, 동시에 국내 갤러리들도 해외의 아트 페어에 적극 참가한다. 국제갤러리가 갤러리현대, 대우 갤러리, 김자희가 이미 해외에 이름을 알렸었으나, 최근 대안에서 열리는 아트 페어 '파리페어' 당파이 아트 & 오아디에에 참가한 에이리온자와 서정오, 아트 바젤의 워싱턴 페어인 '인스테이트 페어 바젤'에 한국 최초로 참가한 삼한아트 등의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다.

한편 기업과 기관 주도로 K-팝과 같은 영상 시스템으로 작가를 성장시키거나 홍보하는 흐름도 엿보인다. 이는 시장 가치와 작품 가치를 오인한 태도다. 해외 아트 마켓에서 높은 가치는 팔렸다고 해서 해외 미술계



출처: 한국문화재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레퍼토리 시즌 2024

12
작곡가



〈12 작곡가〉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작곡가(경기소리)가 작곡가를 다리 삼아 만나는 새로운 융합 프로그램이다.
경기도의 전통 유산인 '12작가' '12인' 작곡가의 상상력을 통해 '12곡'의 국악관현악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작곡가 김선하 제비가
송의 소리, 송의 곡조를 풀어놓는 관현악
'물속의 황새'

작곡가 서지원 소문인가
소문인가? '소'편서는 순창가곡의 변신
'새김으로 놀는 황'

작곡가 조희원 줄인가
줄기의 독특한 '형식'으로, 관현악만의
또 다른 '형식'을 만든다 '제 Taedun'

작곡가 우미현 평인가
노닐의 리듬, 형(형)의 기승형 D가를
노리고 진정한 두드림 '평인가에서'

작곡가 김지숙 유산가
자연과 계절의 기운이 흐르는 관현악
'유산(遺畵)'

작곡가 양동훈 제비가
'가'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간, '영간'을
바라보는 새의 시간 '새들'을

작곡가 백다운 유산가
황사로 빚어진 봄, 유산가속 작곡은
더 이상 뒤돌아가지 않다 '가파 안달라'

작곡가 유세원 평인가
형상의 고를을 둘러싸며, 우리를 속하는
것을 바라보기 고 : letter

작곡가 배주희 선유가
노래의 가사(가사)에서 가사(가사)의 흐름으로
'가사(가사)를 노래가사'

작곡가 이창희 유산가
자연의 '질'을 풀어냄, 소리의 움직임
'일출(일출)'

작곡가 오예송 유산가
봄의 찬란한 시작을 위해, 모든 소리를
통한다
'바람과 바람'

작곡가 이종현 발품가
남들은 아들이고 슬픈 사람이야 하는데,
내가 볼 땐 주머니
'내일의 기쁨' - 영원한 후회'

프로그램의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연은 12월 27일 공연

2024.10.24. THU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티켓 R 4만원 S 3만원 A 2만원 좌석 조동학상 여성 예매 인터넷 티켓 1544-2344 문의 031-289-6471-5

대극장
19:30

Zoomin

감성곡이상을 넘어선 무대 조력자
경기아트센터무대 팀에서 만난
인사를 소개합니다

GGAC News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소식
Calendar
10월달 카탈로그 공연-전시 일정

경기아트센터
경기아트센터



*대한민국 차이는 페스티벌을 앞두고 관객들에게
무대 기계를 숨겨서 보여주려고 있는 인스루 기계를
개발했다.

감성과 이상을 겸비한 무대 조력자

한 편의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감독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세트와 조명이 안전하게 준비되고, 대안들의 막이 오르고 파날례를 장식하며, 장면이 유연하게 전환되는
무대 뒤 모든 곳에 인스루 기계감독의 세심한 손길이 닿아 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아트센터
무대기술팀의 안수용 기계감독입니다.
기계감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극장의 전
반적인 안전과 공연 진행을 위한 상하부 장치
구동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무
대 상하부는 공연에서 사용되는 막이나 세트 혹은
조명 장치를 매달아놓는 베란이 있고, 하
부에는 오케스트라 피트나 리프트 혹은 회전
무대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공연 중 막 전환
이나 공연의 한 장면을 구성하기 위해 이 기
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일을
하는 분이 무대 기계입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계거나 이유가 있나요? 진로
를 정할 때 티안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몰입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
했습니다. 이 직업은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
게 기억 속 좋은 한 장면을 선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계감독 일을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점
은 무엇인가요? 대학에서 전자전기공학에 진

공했습니다. 제아나 전기적인 부분은 기계의
하드웨어 구동과 원리에 대한 이해, 프로그
램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지 논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구현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극장의 많은 기계를 운
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할 때는 더 도움이 되
더군요. 전환이 많은 공연이나 갑작스러운 상
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 업무적으로 수월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무엇보다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스프레드 시트지로 세트장과 공연
전행, 철저하지 않으면 안전이 많기 때문
입니다. 순간 집중력도 중요합니다. 고민해야
할 부분도 많고, 어느 한순간에 집중력을 요
구하지 않는 작업이 없거든요. 다른 공연팀과
협업 시 다양한 상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극장에서 근무하는 장점도 있

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약 2년간
근무했습니다. 연업을 볼 때부터 회사에서 마
주신 관객들의 에너지가 좋아서 꼭 일하고 싶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을 변화
하지 않습니다. 근무할수록 공연 현장을 보면
서 배우는 점이 많아요. 공연을 통해 어떤 시
간 생각하던 것들이 실현되는 것이라서 설레고
다른 점이 있고, 해가 갈수록 세트 전환 시에
도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공연 하나를 진
행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제
가 공연의 일부분을 담당해야지 정말 수 있다
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024 대한민국 피하는 페스티벌에서 기계
감독을 맡으셨습니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은 무엇인가요? 기계감독 자에서 보더라도
역사나 안전사고와도 관련이 있음 반사판,
하부에 해당하는 오케스트라 피트나 리프트
사용률이 높아 공연 준비 기간이 많을 때 해
야 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기계를 다뤄야 하
기에 음향 반사판을 설치할 때는 늘 주의를
기울어야 하고, 연주용 의자나 덤마루, 보란
대 등 무대 장치를 옮기기 위해 리프트나
오케스트라 피트를 운용해 작업할 때도 집
중해야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순간, 또 흐름 순간은
언제인가요? 호흡이 긴 공연을 할 때는 긴장
감이 높아져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그만
큼 보람도 큼니다. 관객의 반응이 즉각적이고
좋고, 특히 전환이 많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뮤지컬 공연은 보람을 많이 느낀
니다. 마지막 공연 커튼콜을 하면서 느끼는 행
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올해의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어떤 것이었
는지요.



무대 기술팀, 긴급요청을 접수하고
공간의 위해 경계를 살펴보고, 기계를 운영한다.



제9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 대안편의 막을 내린다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7개 지역에서 열린 총 37개 오케스트라가 대안편의 막을 내렸다.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제는 경기아트센터가 기획하고 경기아트센터와 (사)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부가 주관한 프로젝트로, 전국청소년 오케스트라 참가팀이 참여한 음악적 재능을 선보였다. 올해는 9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제는 2016년 개최 이래 8,0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을 위한 국제 축제 형태로 꾸며졌다. 청소년 음악가들에게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적 재능을 키울 기회를 마련하며, 지역사회의

와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공연을 선보여 음악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무대다. 청소년 교향악단들은 소울로부터 슈베르트의 요지무데' 서곡, 조르주 비제의 (카리발), 베토벤 심포니 7번, 드보르자크 심포니 9번 등 다양한 곡을 연주하고 소화에 무대 위에 연주했다. 8월 10일 김포 아브올에서 북한청소년교향악단을 시작으로, 8월 17일 미원아브올, 8월 18일 군포문화예술회관, 8월 24일 고양아람누리, 8월 25일 의정부예술의전당, 9월 7일 화성유원지아트센터 화성아트홀,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8일 경기아트센터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GGAC NEWS

10월과 11월의 경기아트센터 소식을 소개한다.



2024<경기창년예술기획무대> 기획공연 기획 (경기창년예술기획무대)는 예술계 진입과 프로 무대에 눈부신 활약을 목격로 하는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예술의 가치와 예술인의 존재 의미를 공고히 하고자 경기아트센터에서 시작한 아트스트를 위한 무대. 예술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에 오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예 청소년 예술인에게는 경험을, 무대 경험은 있지만 더 활발한 활동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에게는 화려한 무대에 설 기회를 주고자 진행하는 경기도 대표 사업이다. 청년 아티스트들과 지속 가능한 동행으로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예술계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대적으로 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어 시작자에게는 순수예술분야 청년 아티스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다. 1차로 음악 분야 실연 실사를 통해 선발된 총 40명(댄스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일종간 경기아트센터에서 기획 공연을 선보였다. 또 7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차로 무용 분야 공연을 진행했다. 한국무용, 현대무용, 연극 총 세 분야 공연을 진행했으며, 실연 실사를 통해 한국무용 13명, 현대무용 20명, 연극 24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아티스트들은 12월 중순에 한국무용은 (한류문화의 유산), 현대무용은 (기억의 나무), 연극은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경기아트센터에서 공연할 계획이다.



손은 와일더 작
오세근 역
오세현 음색
김광보 연출

OUR TOWN
by Thornton Wilder

2024.
11.16.-24.

평일(화-금) 19:30
주말(토-일) 15: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R석 30,000원 5석 20,000원 예매 인터파크티켓 1544-2344
단체 공연문의 경기도극단 031-230-3302-4
8세 이상 관람가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라온아트 90분 내격 (연극) 공연

S	M	T
가을명화의잔치 Autumn Masterpieces Banquet 11월 14, 15, 16일 19:00 경기아트센터 극장		
3	4	5
10	11	12
17	18	19
무어맨 (오리) 11월 14일 14:00 경기아트센터 극장 무어맨 18:00 경기아트센터 극장	CHICAGO	《무어맨》 14:00 경기아트센터 극장
24	25	26
《무어맨》 14:00 경기아트센터 극장		

예술과 만나다

(예술작품)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SNS,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강가아트센터의
다채로운 공연 소식과 좋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는
문화 예술의 가장 핫한 이슈를 만나보세요.



카카오 채널
『강가아트센터 예술작품展』

강가아트센터 대표 채널 (예술작품展) 콘텐츠와 프로모션 소식을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강가아트센터 OFFICIAL

강가아트센터의 다양한 소식과 행사정보를 가장 먼저 알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SNS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강가아트센터 OFFICIAL

강가아트센터의 최신 소식과 재미있는 이야기.
문화 예술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TUBE.COM 강가TV 강가아트센터

우리 삶의 예술, 강가아트센터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내 손안에 펼쳐지는 생생한 공연 실황, 프로그램 인터뷰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와 공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MPOST NAVER.COM 강가ARTS

자전거 SNS로 가장 먼저 찾아볼만한 이야기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글과 사진, 도스통을 지금 확인하세요!

예술(작품)은 국적과 언어의, 언어는 국적 없이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그러나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누구나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힘을 우리는 꼭 지켜나가야 합니다.

강가아트센터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 소식을 만나보세요.

www.gagaarts.or.kr

(예술리뷰)은 국외와 불만, 전국 등경기아르헨티나의 작은 공연 소식과 읽을 만한
뉴스 정보 등 다양한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매거진입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메일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magazine@ppac.or.kr



사진: 박지민

피아노 소리의 미학

어릴 적 피아노를 배우던 때가 떠올랐다. 어느 가정집마다 거실 한쪽을 장식하고 있는 악기였고, 음악 형제였던 어머니도 피아노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여겼었다. 그만큼 친숙한 악기지만 '알 치기'란 쉽지 않았다. 그저 건반을 두드린다고만 되는 게 아니었다. 아반 소리를 위해 아주 오랜만에 피아노와 마주하고선, 문득 그랜드피아노 안을 들여다보았다. 커다랗고 두꺼운 피아노 말에 앉아 연주자가 내는 소리는 많은 이가 현사레도 88개의 건반을 누르면 각각 연결된 해가 현을 두들기고 공명 상자로 울려서 소리가 울리는 해마-몸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피아노를 건반악기지만 타악기이자 현악기라고도 하나 본다. 그러면 악기보다 음악대가 넓고 표현력이 풍부하다. 눈과 귀를 사로잡고 감성과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의 미학' 건반을 치고 현을 울려 공명하는 소리 그 자체로도 놀랍도록 아름다운 악기가 바로 피아노 아닐까. 음악은 주



이건 꼭! 해야겠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QR코드를 인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듭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www.ggac.or.kr

